

# 17~19세기 大妃殿 宴禮의 변천

김종수\*

---

I. 머리말	1. 자리 배치
II. 17~19세기 대비전 연향 개관	2. 拜禮
1. 1611년(광해군 3) 대비전 연향	3. 饌案 진설
2. 1630년(인조 8) 대비전 연향	4. 進爵
3. 1686년(숙종 12)과 1728년(영조 4) 대비전 연향	5. 侍宴者 향응
4. 1848년(헌종 14) 대비전 연향	6. 禮畢
III. 17~19세기 대비전 宴禮 비교	IV. 맺음말

---

## I. 머리말

연향은 인간관계를 화목하게 만들어 유대를 강화시켜주므로, 통합된 사회를 이루는데 필요한 요소이다. 그 중에서도 대비전<sup>1)</sup> 연향은 백성들에게 孝를 일깨우는 교화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더욱 중시되었다. 이는 “신들이 대비전 연향을 간절히 아뢰는 것은 함께 연락(宴樂)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군이 孝로써 나라를 다스린 연후에 本來이 분명해지는 것이니, 이는 王政 가운데 큰 일입니다.”<sup>2)</sup>라는 1548년(명종 3)의 기록에서 확인된다.

연향에는 인군과 신하의 화합 및 중궁과 命婦의 화합을 위해 베푸는 會禮宴, 노인을 위해 베푸는 養老宴, 명절과 생신 및 경사스러운 날에 왕실 가족과 친인척 및 臣子가 親愛의 情

---

\* 필자: 규장각 책임연구원

1) 大妃는 선왕의 비를 가리키는 凡稱이다. 대비가 여럿인 경우 대왕대비·왕대비·대비로 구별된다. 예를 들면, 철종대(哲宗代, 1849~1863)에 純祖妃인 純元王后(1789~1857)는 대왕대비로, 翼宗妃인 神貞王后(1808~1890)는 왕대비로, 憲宗妃인 孝定王后(1831~1903)는 대비로 호칭되었다. 본고에 쓰인 대비는 凡稱이다.

翼宗은 憲宗(재위 1834~1849)이 純祖(재위 1800~1834)의 뒤를 왕위에 오름에 따라, 자신의 父인 孝明世子(1809~1830)를 追尊한 칭호이다. 효명세자는 순조의 장남이나 1830년(순조 30)에 22세의 젊은 나이로 急逝하여 왕위에 오르지 못했다.

2) 『明宗實錄』, 卷8.34a: 明宗 3年 8月 癸丑.

을 펴는 進宴, 事大交鄰과 관련된 使客宴 등이 있는데, 대비전에 올리는 연향은 進宴에 속한다.

대부분의 연향에서는 왕 또는 왕비가 가장 높은 이로서 참여하지만, 대비전 연향에서는 왕·왕비보다 웃어른인 大妃殿이 참석하니, 자리 배치와 儀節이 前者와는 다르다.

그런데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의궤와 등록 등이 소실되었으므로,<sup>3)</sup> 1630년(인조 8) 대비전 연향을 기록한 『豊呈都監儀軌』<sup>4)</sup>가 대비전 연향 의례를 살필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의 문헌이다.

18세기의 대비전 연향 의궤로는 『甲子進宴儀軌』(1744)가 있고, 대비전이라 호칭할 수는 없지만, 혜경궁(정조의 生母)에게 올린 연향을 기록한 『園幸乙卯整理儀軌』(1795)를 참조할 수 있으며, 19세기에는 『戊申進饌儀軌』(1848) 『戊辰進饌儀軌』(1868) 『癸酉進爵儀軌』(1873) 『丁丑進饌儀軌』(1877) 『丁亥進饌儀軌』(1887) 등 풍부한 자료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임란 후 황무지에서 대비전 연향 의례를 어떻게 구성했고, 그 이후 어떻게 정비해 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2장에서 17~19세기 대비전 연향 의식의 큰 틀을 살펴 대략적인 양상을 조망한 뒤에, 3장에서 각 절차별로 자세히 의식을 비교하고, 결론에서 대비전 연례의 변천을 서술하도록 하겠다.

## II. 17~19세기 대비전 연향 개관

임란 이후부터 조선조 말까지, 즉 17세기에서 19세기까지에 걸쳐 대비전에 올린 연향은 <표 1>과 같다.

<표 1>의 연표 중 1611년(광해군 3)에서 1743년(영조 19)까지의 연향에서는 『豊呈都監儀軌』 하나만 전해져 오는데, 이 의궤는 본래 1630년(인조 8) 연향을 기록한 것이나, 부록으로 1611년(광해군 3)과 1624년(인조 2) 연향도 같이 서술되어 있다. 다만 1611년과 1630년 연향 의식은 상세히 실려 있는 반면에 1624년 연향 의식은 일부분만 실려 있으니,<sup>5)</sup> 17세기 대비전 宴禮로는 1611년(광해군 3)과 1630년(인조 8)의 것을 살필 것이다.

1744년(영조 20) 연향 이후로는 1857년(철종 8)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儀軌로 전해

3) 『光海君日記』 卷19.15b: 光海君 元年 8月 己巳. “祔廟都監啓曰 經變以後一應曆錄盡爲散失”

4) 1886년(고종 23) 丙寅洋擾 때 프랑스군이 강화도 외규장각에서 약탈해가서, 프랑스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국립국악원에서 韓國音樂學資料叢書 제13권으로 影印 발행했으며, 1999년에 韓國音樂史料硏究會에서 번역하여 『國譯豊呈都監儀軌』란 이름으로 민속원에서 출판했다.

5) 1624년(인조 2) 연향을 기록한 『甲子年豊呈都監錄』이 정묘호란(1627, 인조 5)때 유실되었기 때문이다. <『豊呈都監儀軌』 5a>. 張數는 원본에 적혀 있지 않으나, 편역상 『國譯豊呈都監儀軌』(서울: 민속원, 1999)의 영인본에 달아놓은 張數를 표기했다. 이후도 마찬가지이다.

〈표 1〉 17세기~19세기 대비전 연향 연표

시일	주빈
1611년(광해군 3) 12월	仁穆王后(宣祖 繼妃)
1624년(인조 2) 10월	仁穆王后
1630년(인조 8) 3월	仁穆王后
1657년(효종 8) 12월	莊烈王后(仁祖 繼妃)
1677년(숙종 3) 11월	莊烈王后 · 明聖王后(顯宗妃)
1686년(숙종 12) 윤4월	莊烈王后
1728년(영조 4) 9월	仁元王后(肅宗 繼妃) · 宣懿王后(景宗 繼妃)
1739년(영조 15) 4월	仁元王后
1743년(영조 19) 9월	仁元王后
1744년(영조 20) 10월	仁元王后
1848년(헌종 14) 3월	純元王后(純祖妃)
1857년(철종 8) 3월	純元王后
1868년(고종 5) 12월	神貞王后(翼宗妃)
1873년(고종 10) 4월	神貞王后
1877년(고종 14) 12월	神貞王后
1887년(고종 24) 정월	神貞王后

져 온다. 그런데 18세기 의례인 『甲子進宴儀軌』(1744)가 缺本이어서<sup>6)</sup> 구체적인 연향 의식을 살필 수 없고, 혜경궁이 先王의 妃가 아니므로, 『園幸乙卯整理儀軌』가 참고는 되나 꼭 합당한 자료는 아니다. 다행히도 1728년(영조 4) 대비전 연례<sup>7)</sup>가 『國朝續五禮儀』<sup>8)</sup>에 마침 실려 있으므로, 18세기의 것은 이를 살필 것이다.

19세기 대비전 연례는 1887년(고종 24)의 것을 선택하여 살피고자 한다. 1848년(헌종 14) 이후의 의례를 비교한 결과 대비전 연례가 거의 비슷하여,<sup>9)</sup> 어느 것을 택해도 무방하

6) 김종수, 「1744년(영조 20) 耆老所 入所와 《甲子進宴儀軌》」 『규장각소장 의례 해제집 1』(서울대 규장각, 2003) 28~29쪽.

7) 『國朝續五禮儀』 권2에 실린 大王大妃 進宴儀는 ‘숙종 병인년(1686, 숙종 12)과 영조 무신년(1728, 영조 4)에 행해진 의식이라’ \*고 한다. 그러나 이 의주에 대왕대비 · 왕대비 · 왕 · 왕비 · 세자 · 세자빈 · 命婦가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1728년(영조 4)에 시행된 연례로 판단했다. 왕대비였던 숙종의 모후(明聖王后)가 1683년(숙종 9) 12월에 승하하는 바람에 1686년(숙종 12) 연향에는 왕대비 없이 대왕대비만 참석했기 때문이다.

\* 『國朝續五禮儀』 권2.53a. “舊禮不傳 肅宗丙寅行此宴禮 今上戊申又行此儀即慈宴儀也”

8) 國朝續五禮儀: 조선 후기에 이르러 1474년(성종 5)에 완성된 『國朝五禮儀』가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자, 이를 수정 · 보완해서 1744년(영조 20)에 편찬한 禮典이다. 『經國大典』의 속편인 『續大典』과 함께 찬집되었다.

나, 1887년에 왕·왕비·세자·세자빈 등이 대왕대비를 侍宴하여,<sup>10)</sup> 참석자의 구성이 1611년·1630년 연향과 그중 가장 가깝기 때문이다.

### 1. 1611년(광해군 3) 대비전 연향

조선시대에 일반적으로 先王을 祔廟한 후에 嗣王은 대비전을 위로하는 뜻에서 대비전 연향을 올렸다. 그리하여 광해군도 1610년(광해 2)에 宣祖를 부묘한 후 대비전(仁穆王后)을 위해 進豊를 마련하고자 했다.<sup>11)</sup>

우선 1610년 4월 19일에 ‘貞懿’라는 尊號를 加上하는 冊寶를 올렸는데, 인목왕후가 친히 임하지 않겠다고 하여 權停禮로 행했다.<sup>12)</sup> 이로 미루어 인목왕후는 연향도 그리 달가와하지 않았으리라 추정된다. 그도 그럴 것이 광해군이 즉위한 지 보름도 채 지나기 전에 왕위에 위협이 되는 자신의 친형 臨海君을 역모로 몰아 유배보냈다가, 다음해(1609) 4월에 죽이는 사건<sup>13)</sup>이 있었으니, 유일한 嫡統 왕자인 永昌大君의 생모인 인목왕후의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을 터이기 때문이다. 인목왕후는 광해군의 계모이나 광해군 보다 9살이나 어렸다. 어찌됐든 대비전(인목왕후)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명목 아래, 임란 중 폐지되었던 여악을 다시 설치하여 1611년 11월 8일에 昌慶宮의 通明殿에서 進豊를 행했다.<sup>14)</sup>

난리를 겪은 뒤 일체의 등록과 의제가 모두 散失되어, 의주 마련에 어려움이 있었다. 대왕대비가 가장 높은 어른이니 대왕대비가 북쪽에 앉고, 왕이 그 다음 높은 자리인 동쪽에 앉아야 하는데, 外庭命婦를 제외한 外命婦,<sup>15)</sup> 즉 옹주와 왕자부인 및 內命婦는 家人의 예를 행하면 되니 문제될 것이 없으나, 신하의 의리가 있는 의정명부가 동향하여 임금을 대하는 것이 문제되었다.<sup>16)</sup>

9) 『규장각소장의제 해제집 1』(서울: 서울대 규장각, 2003), 84~148쪽.

10) 즉 1848년·1868년·1873년에는 세자가 없으며, 1877년에는 세자가 단지 4세로서 혼례를 행하지 않아 세자빈이 없기 때문이다.

11) 『光海君日記』 卷25.21a: 光海君 2年 2月 癸亥. “傳曰 實錄考出時 慈殿上號後進豊呈 前例並考啓” 참고한 『光海君日記』는 1969년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영인한 太白山史庫本 中草本이다.

12) 『光海君日記』 卷28.8a-9a: 光海君 2年 4月 壬辰, 癸巳, 甲午.

13) 『光海君日記』 卷15.40a: 光海君 元年 4月 庚辰.

14) 『光海君日記』 卷47.1b: 光海君 3年 11月 癸卯. “進豊呈宴于通明殿”.

그러나 『豊呈都監儀軌』 25b에 따르면 대비전이 11월 8일에 사정이 있어서 11월 12일로 연향을 미루도록 지시한 기록이 나온다. 『豊呈都監儀軌』 25b. “備忘記 慈殿下教內 初八日有故云 進豊呈以十二日 退行事 言于該曹”

15) 外命婦는 왕의 유모, 왕비의 어머니, 공주, 옹주 등과 종친·문무관의 아내로서 남편의 職品에 따라 국가로부터 封爵을 받은 여인을 일컫고, 이 중 문무관의 아내는 外庭命婦라고 일컫는다.

16) 신하는 임금을 대할 때 북향해야 하기 때문이다.

『豊呈都監儀軌』 23b-24a. “辛亥 九月 二十八日 … 若無典禮之可據 而外庭命婦混雜於自上臨御之前 則

그리하여 ‘命婦가 入侍하기 전에 왕과 세자가 먼저 行禮하고, 그다음에 왕비가 명부를 거느리고 들어와 侍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고,<sup>17)</sup> ‘士大夫家の 일로써 비유하자면 주인이 먼저 어버이에게 獻壽하고서 나간 뒤에 주부가 女客을 이끌고 잔치를 베푸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sup>18)</sup>

座次는 대왕대비전이 북쪽, 왕이 동쪽, 왕비가 서쪽, 세자가 대왕대비의 남쪽에서 동쪽 가까이, 세자빈이 대왕대비의 남쪽에서 서쪽 가까이, 내명부가 세자빈의 뒤에, 외명부가 세자빈의 동쪽에서 조금 뒤로 물려서 앉도록 정했다.<sup>19)</sup>

그러나 행사를 보름도 채 남겨놓지 않고 여전히 ‘외명부가 참석하면 外庭의 예가 되는데 임금이 동쪽에 앉아 있는 것이 곤란하다. 御幕을 설치하여 行禮 때에 들어와 獻壽한다면 합당하나 내외명부가 임금에게 拜講하지 않고 그대로 자리에 있는 것 또한 옳지 않다. 그러니 命婦가 入侍하기 전에 임금이 먼저 獻壽를 하고 어막으로 돌아간 뒤에 중전이 명부를 이끌고 入侍하는 것이 마땅할듯하나, 그 뒤에 임금이 다시 入侍하지 않는다면 종일토록 대비전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니 이것도 미안하다.’라고 하여 儀註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었다.<sup>20)</sup>

결국엔 命婦가 入侍하기 전에 임금이 먼저 獻壽하고 御幕으로 나가 있거나 하지 않고, 임금이 내외명부가 같이 侍宴하되, 내외명부가 대왕대비에게 사배한 후 왕과 왕비에게 사배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그 의주를 대략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up>21)</sup>

① 왕과 왕비가 대왕대비에게 四拜하고 각각 동쪽과 서쪽에 앉으면, 세자가 대왕대비에게 복

事體極爲未安”

『豐呈都監儀軌』 24b, “辛亥 十月 十三日 … 若如曲宴 以家人禮設行 則自上雖東壁 是或一道 而今則外庭命婦 亦當入參 是便成君臣之禮 以至尊而臨御東壁 揆之事理 終有所不安者”

17) 『豐呈都監儀軌』 21b, “辛亥 二月 十一日 禮曹啓曰 … 而但內外命婦 既在入時[侍]之列 則自上與王世子 一時進參 座次禮節 俱有所難便者 臣等之意 於命婦未入侍之前 自上與王世子先爲行禮 禮畢之後 中殿率命婦侍宴 似乎得宜”

『豐呈都監儀軌』 21b-22a, “辛亥 二月 十三日 禮曹啓曰 … 祖宗朝舊例 今無儀軌可據 而以常情度之 則若內命婦翁主王子君夫人 雖或以家人禮 同參入侍 容有可諉 至於外庭士大夫之妻 則混亂於自上侍宴之際 座次禮節 非徒種種難便 揆諸事例亦有所不敢者”

18) 『豐呈都監儀軌』 22a, “辛亥 二月 十八日 禮曹啓曰 議于大臣 則右議政議 … 姑以士大夫家事言之 安有內廳未設宴之前 主人先行壽親之禮 而罷出然後 主婦率女客 始爲設宴 獻壽之理哉”

19) 『光海君日記』 卷46, 13ab: 光海君 3年 10月 癸未.

20) 『豐呈都監儀軌』 25a, “辛亥 十月 二十八日 常時內庭之宴 自當行之家人之禮 若外命婦入參 則便成外庭之儀 自上臨御東壁在禮無據 苟簡莫甚 若設別御幕 只於行禮之時 入獻壽觴 則果合情禮是白在果 自上獻爵之時 內外命婦未曾朝謁 仍在其座 亦所不改是白乎於 若命婦未入侍之前 自上先行獻爵之禮 禮畢還幕次後 中殿率命婦入侍 則似爲得宜 而自上一度獻爵之後 更未入侍 不得終日奉權 亦似未安 該官臆見有難輕自議定 議大臣定奪何如”

21) 『豐呈都監儀軌』 26a-29b. 王大妃殿進豐呈儀.

향하여 사배하고, 동향하여 왕에게 사배하고, 서향하여 왕비에게 사배한다. 내명부·세자빈·외명부 또한 세자가 한 것처럼 대왕대비·왕·왕비에게 사배를 한다.

② 대왕대비·왕·왕비에게 饌案을 올린다.

③ 왕이 대왕대비에게 술을 올리고, '천천세의 장수를 빈다'는 致詞(송축의 글)를 올리면, 대왕대비가 '왕과 더불어 慶事를 같이 즐기겠다'는 傳旨를 내린다. 대왕대비가 술을 마시면 왕이 座에 가서 앉는다. 왕비·세자·內命婦 班首(대표)·세자빈이 순서대로 각각 술과 치사를 올리면 대왕대비가 傳旨를 내린다.<sup>22)</sup> 대왕대비가 술을 마시면 왕비는 座에 가서 앉고 세자 이하는 그대로 拜位에 머물러 있다.

④ 세자·내명부·세자빈·외명부가 자리에 앉고 이들의 饌卓을 진설한다. 差備가 대왕대비·왕·왕비·세자·내명부·세자빈·외명부에게 술을 바친다.

⑤ 왕·왕비가 대왕대비에게 사배하고 나간다. 세자·내명부·세자빈·외명부가 사배한다. 대왕대비가 座에서 내려와 나가면 세자 이하가 나간다.

이후에 살펴볼 연향과 비교해서 1611년 연향의 특징을 하나 꼽는다면, 대왕대비가 왕실 가족에게 손수 술을 내려주는 절차가 없다는 점이다.

## 2. 1630년(인조 8) 대비전 연향

광해군은 왜란 중에 募兵과 군량조달 등 많은 활약을 했고, 戰後 과단성있게 복구사업을 펼쳐 1608년 선혜청을 두어 경기도에 大同法을 실시했으며, 명과 後金 사이에 중립적인 외교를 펼치는 등 공적을 세웠지만, 이복동생인 영창대군을 죽이고 계모인 인목왕후를 庶人으로 강등시킨 패륜을 빌미로 재위 15년만에 쫓겨나, 그의 이복 조카인 綾陽君(仁祖)이 1623년 3월에 즉위했다.

인조는 즉위하자 십수년동안 고초를 겪은 대왕대비(仁穆王后)를 위로하는 연향을 베풀고자 했으나, 광해군의 무리한 궁궐 영건<sup>23)</sup>으로 나라의 저축이 바닥난 데다가, 반정공신의 책록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이괄이 1624년(인조 2) 정월에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겨를이 없어 실행에 옮기지 못하다가,<sup>24)</sup> 1624년 10월 9일에 대왕대비에게 진풍정을 올렸다.<sup>25)</sup> 이에 대한 의주는 『豊呈都監儀軌』에 소략하게 일부분이 실려 있다.

22) 세자빈에게는 대왕대비가 전지를 내리지 않아서 미심쩍다.

23) 1607년(선조 40)부터 증건되기 시작한 창덕궁이 광해군 원년(1609)에 완성되었으며, 창경궁이 1616년(광해군 8)에 재건되었고, 그 외에 광해군 재위 9년부터 인왕산 남쪽 서대문 부근에 慶德宮(영조때 경회궁으로 개명)을 축조하여 12년경에 거의 완공을 보았고 인왕산 동쪽 지금의 필운동 일대에 仁慶宮을, 北學 자리에 慈壽宮을 짓는 공사를 시작했다. <한영우, 『昌德宮과 昌慶宮』(열화당·효형출판, 2003), 48~49쪽>

24) 『仁祖實錄』 卷5, 42b: 仁祖 2年 4月 壬辰.

25) 『仁祖實錄』, 卷7, 17b: 仁祖 2年 10月 庚寅. “上進豊呈于大王大妃”

인조가 1629년(인조 7)에 다음해 봄에 인목왕후에게 進豊를 올리고자 계획을 하니, 인목왕후는 언서로 삼공과 육경에게, '지난해에 기근이 들었고 올해 농사도 풍작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이제 가까스로 기근을 면한 백성들에게 豊로에 소요되는 비용을 내도록 하는 것은 불가하며, 胡亂(정묘호란, 1627, 인조 5)을 겪은 지 얼마 되지 않아 국가가 바야흐로 전시 상황에 있으니 풍정은 불가하다.' 라는 의견을 피력했다.<sup>26)</sup>

그리하여 대신들이 대비전의 뜻을 왕에게 전하며, 다음 해 가을로 豊를 올릴 것을 누차 청했고,<sup>27)</sup> 1630년 봄에는 또다시 헌부에서 '종묘 밖 버드나무에 벼락이 치는 災異가 있었고, 또 명이 金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니 풍정을 할 때가 아니다.' 라는 차자를 올렸지만,<sup>28)</sup> 결국 1630년(인조 8) 3월 22일에 仁慶宮에서 대비전에 진풍정을 올렸다.<sup>29)</sup>

1611년(광해군 3)에 진풍정의주를 마련할 때 가장 곤란했던 점은 대왕대비가 북벽에 앉고, 왕이 동벽에 앉는 상황에서, 신하의 의리가 있는 外庭命婦의 行禮였다.

1611년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 내외명부가 임금에게 拜謁하는 것만 해결했으므로, 1630년에 또 다시 의주가 논의되었다. 1630년에는 '왕·세자'가 행례하는 동안 외정명부가 便次로 나가 자리를 피하고, 외정명부가 행례하는 동안은 '왕·세자'가 각각 小次와 便次로 나가 있는 것으로 정했다. 그 의주를 대략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up>30)</sup>

① 왕·왕비·세자가 대왕대비에게 사배하고 각각 소차와 편차로 나간다. 세자빈과 외명부가 대왕대비에게 사배하고, 외명부 중 外庭命婦가 편차로 나간다. 왕·왕비가 座에 앉으면, 세자가 동향하여 왕에게 사배하고 서향하여 왕비에게 사배하고 편차로 나간다. 세자빈과 외명부(외정명부는 제외)가 각각 왕과 왕비에게 사배한다.

② 대왕대비·왕·왕비에게 饌案을 올린다.

③ 왕이 대왕대비에게 술을 올리고, 致詞(송축의 글)를 올리면, 대왕대비가 傳旨를 내린다. 대왕대비가 술을 마시면 왕이 소차로 나간다.

왕비·세자·세자빈·外命婦 班首가 순서대로 각각 대왕대비에게 술과 치사를 올리면 대왕대비가 전지를 내린다. 대왕대비가 술을 마시면 왕비는 座에 앉고, 세자는 편차로 나가며, 세자빈과 외명부는 그대로 배위에 머문다. 단 세자가 편차로 나간 뒤에 외정명부가 들어와 왕비에게 사배하고 대왕대비에게 술과 치사를 올리는 절차에 참여하고, 대왕대비가 술을 마시면 또다시 편차로 나간다.

④ 왕이 다시 들어와 座에 앉는다. 세자·세자빈·外命婦(외정명부 제외)가 座에 앉고, 이들의 찬탁을 진설한다. 왕이 대왕대비에게 술을 올리고, 대왕대비가 내려주는 술을 마시고 座에 앉는다. 차비가 왕비·세자·세자빈·外命婦(외정명부 제외)에게 술을 바친다. 왕이 소차로 나

26) 『仁祖實錄』 卷21.26b: 仁祖 7年 9月 壬寅.

27) 『仁祖實錄』 卷21.26b-27a: 仁祖 7年 9月 甲辰. 『仁祖實錄』 卷21.30b: 仁祖 7年 10月 甲寅.

28) 『仁祖實錄』 卷22.12b-13a: 仁祖 8年 2月 庚午.

29) 『仁祖實錄』, 卷22.21a: 仁祖 8年 3月 壬寅, “上在仁慶宮 行進豊呈禮 九酌而罷 翌日還宮”

30) 『豊呈都監儀軌』 17a-20b. 進豊呈儀.

간다.

왕비·세자·세자빈이 각각 순서대로 대왕대비에 술을 올리고, 대왕대비가 내려주는 술을 마시는데, 이때 대왕대비로부터 술을 받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차비가 술을 바친다. 단 세자는 술을 마시고 편차로 나가고, 이와 함께 외정명부가 들어와 座에 앉으며, 외정명부의 찬탁이 진설된다.

⑤ 외정명부가 편차로 나간다. 왕·왕비·세자가 사배하고 각각 소차와 편차로 나가면, 외정명부가 들어와 세자빈·외명부(공주·옹주·왕자부인)와 함께 사배한다. 대왕대비가 座에서 내려와 나가면 세자빈 이하가 나간다.

1630년 연향의 특징을 하나 꼽는다면, 왕과 세자가 行禮하고 각각 小次와 便次로 나가고, 외정명부도 行禮하고 편차로 나가서, 서로 자리를 피한다는 점이다.

### 3. 1728년(영조 4) 대비전 연향

先王을 祈廟한 후에 대비전에 연향을 올리어 위로하는 前例에 따라 1727년(영조 3)에 대비전에 進宴을 올리고자 하였다. 그러나 대왕대비(仁元王后)가 ‘국가의 저축이 고갈되었으니, 내년 봄으로 물러라.’<sup>31)</sup>고 하여, 다음해 4월로 불렀고, 막상 그 시기에 이르러서는 ‘이 인좌의 난으로 수만의 軍兵이 오래도록 둔을 치는 바람에 饑民이 먹을 식량을 많이 소비한 데다가, 大軍이 지나간 곳은 백성들이 흩어져서 경작시기를 놓쳤다.’ 하여, 진연을 또 다시 물리어,<sup>32)</sup> 1728년(영조 4) 9월 15일에서야 대왕대비(仁元王后)에게 進宴을 올리고, 사흘 뒤에 왕대비(宣懿王后)에게 진연을 올렸다.<sup>33)</sup>

1611년(광해군 3)과 1630년(인조 8)의 연향은 진풍정인데, 1728년의 연향은 진연인 점이 다르다. 대왕대비전이 참석하는 內宴의 경우 진풍정과 진연의 차이는 외명부의 참석규모에 달려 있다. 1630년 진풍정에서는 外命婦로 종친·文武東西班功臣·정2품 이상·三司 장관·六承旨의 夫人을 入參하게 했으나,<sup>34)</sup> 1677년(숙종 3) 진연에서는 외명부로 大殿乳母·王妃母·공주·왕자부인을 입참하게 한 것으로<sup>35)</sup> 미루어, 1728년 진연에서도 1677년

31) 『英祖實錄』卷11.32a: 英祖 3年 4月 丁酉.

32) 『英祖實錄』卷17.5ab 英祖 4年 4月 癸未, 甲申.

33) 『英祖實錄』卷19.14a: 英祖 4年 9月 壬戌. “進宴于大王大妃殿 越三日 進宴于王大妃殿”

34) 『壽宴膳錄』52b. “曹單子 庚午年 大妃殿進豐呈節目 … (中略) … 外命婦依近例 宗親府 文武東西班 功臣正二品以上 三司長官 六承旨夫人 入參爲白乎矣” 藏書閣 소장도서로 청구기호는 <귀 K2-2865>이며, 한예중 전통예술원 한국예술학과 음악사료강독회에서 이를 번역하여 『국역 수연등록』이란 이름으로 발행하였다. (2003년 한예중 발행, 민속원 인쇄). 원문에는 원래 張數가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국역수연등록』에 영인본을 실으면서 편의상 張數를 부치었고, 필자는 이를 따랐다.

35) 『壽宴膳錄』55ab. “丁巳 十月 二十八日 … (中略) … 今此進宴時 依年前尊崇册禮時例 外命婦 大殿乳母 王妃母 公主 王子夫人 則 並爲進參 似當 … (中略) … 傳曰 允”

과 같은 규모로 외명부를 입참하게 했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즉 1728년 연향에서는 외정명부가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1630년 연향에서처럼 왕이 자리를 피하거나 할 필요가 없었다. 또 앞의 두 연향과 달리 대왕대비전 연향에 왕대비가 참석했으므로 왕대비의 행례절차가 추가되어 있다. 좌차도 대왕대비가 북쪽, 왕대비가 동쪽, 왕이 서쪽에 앉음에 따라, 왕비·세자빈·命婦가 왕대비와 같은 동편에, 세자는 왕과 같은 서편에 앉게 되었다.

그 의주를 대략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up>36)</sup>

① 왕대비가 대왕대비에게 사배하고 座에 앉는다. 왕과 왕비가 북향하여 대왕대비에게 사배하고 동향하여 왕대비에게 사배하고 각각 座에 앉는다. 세자·세자빈·命婦가 대왕대비에게 사배하고, 동향하여 왕대비에게 사배하고, 서향하여 왕에게 사배하며, 다시 동향하여 왕비에게 사배한다.

② 대왕대비·왕대비·왕·왕비에게 饌案을 올린다.

③ 왕대비가 대왕대비에게 술과 致詞를 올리면 대왕대비가 傳旨를 내린다. 대왕대비가 술을 마시면 왕대비가 座에 앉는다. 왕이 대왕대비에게 술과 치사를 올리면 대왕대비가 傳旨를 내린다. 대왕대비가 술을 마시면 왕이 왕대비에게 술을 올리고 座에 앉는다. 왕비·세자·세자빈이 순서대로 각각 대왕대비에게 술과 치사를 올리면, 대왕대비가 傳旨를 내린다. 왕비·세자·세자빈이 각각 왕대비에게 술을 올리는데, 왕비는 왕대비에게 술을 올린 후 座에 앉고, 세자와 세자빈은 拜位로 간다.

④ 세자·세자빈·명부가 자리에 앉고 이들의 친탁을 진설한다. 왕대비가 대왕대비에게 술을 올리고, 대왕대비가 내려주는 술을 마시고 座에 앉는다. 差備가 왕 이하에게 술을 바친다.

왕·왕비·세자가 순서대로 각각 대왕대비에게 술을 올리고, 대왕대비가 내려주는 술을 마시며, 또 왕대비에게 술을 올리는데, 이때 술을 받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에게 차비가 술을 바친다.

⑤ 왕대비가 대왕대비에게 사배하고 나가고, 왕·왕비가 대왕대비에게 사배하고 나가며, 세자·세자빈·명부가 사배한다. 대왕대비가 座에서 내려와 나가면 세자 이하가 나간다.

1728년 연향의 특징을 하나 꼽는다면, 두 대비전이 참석한다는 점이다. 왕대비가 대왕대비에게 사배하고 座에 앉으면, 왕과 왕비가 대왕대비에게 사배하고, 바로 이어서 왕대비에게 사배하고 앉으며, 세자·세자빈·명부가 대왕대비·왕대비·왕·왕비에게 사배하고 앉는다.

또한 왕대비가 대왕대비에게 술을 올리고 座에 앉으면, 왕·왕비·세자·세자빈이 대왕대비에게 술과 致詞를 올리고 바로 이어서 왕대비에게 술을 올린다.

36) 『國朝續五禮儀』卷2.39a-53a. 大王大妃進宴儀.

#### 4. 1887년(고종 24) 대비전 연향

고종대(1863~1907)에 대왕대비인 神貞王后에게 네차례나 연향을 올렸다. 첫 번째는 1868년(고종 5)에 신정왕후의 환갑을 경축하여, 생신인 12월 6일에 慶福宮의 內殿인 康寧殿에서 進饌을 올렸고, 두 번째는 신정왕후가 대비로 된 지 40년이 된 것<sup>37)</sup>을 경축하여 1873년(고종 10)은 4월 18일에 강녕전에서 進爵을 올렸으며, 세 번째는 신정왕후의 칠순을 경축하여 1877년(고종 14)은 12월 6일에 창경궁 內殿인 通明殿에서 진찬을 올렸다.

네 번째는 신정왕후의 79세 생신인 1886년(고종 23)은 12월 6일에 진찬을 올리고자 준비해가는 중에, 10월 30일에 천둥치고 비가 오는 재변이 생기자 진찬을 다음 해 정월로 미루어, 1887년(고종 24) 정월 27일에 경복궁의 내전인 萬慶殿에서 진찬을 올리어, 80세를 경축했다.<sup>38)</sup>

신정왕후에게 올린 네차례의 연향 중, 왕·왕비 외에 세자·세자빈까지 참석한 1887년의 대비전 연향 의주를 대략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sup>39)</sup>

① 왕·왕비·세자·세자빈·左右命婦·宗親·儀賓·戚臣·진찬소 당상낭청이 대왕대비에게 사배한다.

② 대왕대비에게 饌案을 올린다.

③ 왕이 대왕대비에게 술과 致詞를 올리면 대왕대비가 술을 마시고 나서 전교를 내린다. 왕이 座에 앉는다. 왕비가 대왕대비에게 술과 致詞를 올리면 대왕대비가 술을 마시고 나서 전교를 내린다. 왕비가 座에 앉는다. 세자가 대왕대비에게 술과 致詞를 올리면 대왕대비가 술을 마시고 나서 전교를 내린다. 세자가 座에 앉는다. 세자빈이 대왕대비에게 술과 致詞를 올리면 대왕대비가 술을 마시고 나서 전교를 내린다. 세자빈이 座에 앉는다.

왕·왕비·세자·세자빈에게 饌案을 올린다.

左命婦 班首가 대왕대비에게 술과 致詞를 올리면 대왕대비가 술을 마시고 나서 전교를 내린다. 좌명부는 拜位에 있다. 우명부·종친·의빈·척신이 각각 致詞를 올린다.

세자빈·세자·왕비·왕이 다시 拜位로 나와서 좌명부 이하와 함께 세 번 머리를 조아리고, '천세·천천세'를 의친다.

④ 왕·왕비·세자·세자빈이 좌에 앉고, 좌명부·우명부·종친·의빈·척신·진찬소 당상낭청이 자리에 앉는다. 좌명부 이하의 饌床을 진설한다.

왕·왕비·세자·세자빈이 순서대로 각각 대왕대비가 내려주는 술을 마신다.

좌명부·우명부·종친·의빈·척신·진찬소 당상낭청이 술을 마신다.

⑤ 왕·왕비·세자·세자빈이 사배하고, 좌명부·우명부·종친·의빈·척신·진찬소 당상

37) 1834년에 아들인 헌종이 즉위함에 따라 대비로 되었다.

38) 『규장각 소장 의궤 해제집 1』(서울:서울대 규장각, 2003), 136~138쪽.

39) 『丁亥進饌儀軌』卷1, 26b-39b. 萬慶殿進饌儀. (奎 14405).

낭청이 사배한다. 대왕대비가 座에서 내려 나가면, 왕 이하가 나간다.

### III. 17~19세기 대비전 宴禮 비교

연향은 크게 주변에게 술을 올리며 長壽를 송축하는 것과 侍宴者와 더불어 술을 마시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물론 주변과 시연자의 자리를 마련하고, 연향의 시작과 끝에 拜禮를 하며, 주변에게 술을 올리기 전에 饌案을 올리는 것은 기본 상식이다. 따라서 의식 절차를 자리 배치·拜禮·饌案 진설·進爵·侍宴者 향응·禮畢<sup>40)</sup>로 나누어 각 연향 의식을 비교해보도록 하겠다.

#### 1. 자리 배치

##### 1) 1611년(광해군 3) 대비전 연향의 자리 배치

1611년(광해군 3) 대비전 연향에서 대왕대비·왕·왕비·세자·세자빈·命婦의 자리배치는 다음과 같다.

① 尙寢이 대왕대비좌를 通明殿 북벽에 남향으로 설치하고, 전하좌를 대왕대비좌<sup>41)</sup>의 동남에 서향으로, 왕비좌를 대왕대비좌의 서남에 동향으로 설치한다.

② 典賓이 세자 자리를 대왕대비좌의 남쪽에서 동쪽 가까이에, 세자빈 자리를 대왕대비좌 남쪽에서 서쪽 가까이에 설치하되 북향하게 한다. 內命婦 자리를 세자빈의 서쪽으로 조금 뒤에, 外命婦 자리를 세자빈 뒤에 설치하되 북향하게 한다.

③ 상침이 전하 拜位를 殿檻內 동쪽 가까이에, 왕비 배위를 殿檻內 서쪽 가까이에 설치하되 북향하게 한다. 전빈이 세자 배위를 殿庭의 길 동쪽에, 세자빈 배위를 전정의 길 서쪽에, 내명부는 세자빈의 서쪽 조금 뒤에, 외명부는 세자빈의 뒤에 설치한다.<sup>4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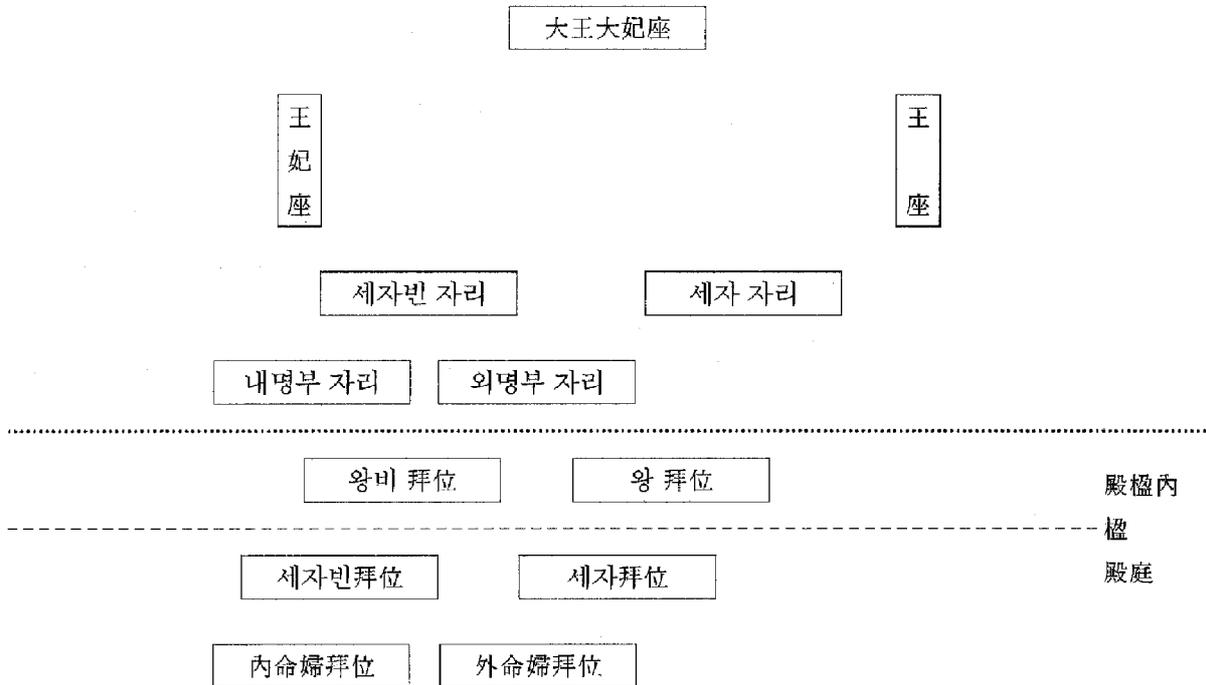
자리 배치는 가장 높은 사람이 북쪽에서 남향하고, 그다음 동쪽에서 서향, 서쪽에서 동향, 남쪽에서 북향하는 순으로 차차 낮아진다. 따라서 대왕대비가 북쪽에, 왕이 동쪽에, 왕비가 서쪽에, 세자와 세자빈 및 명부가 남쪽에 자리한다. 이를 도표로 표시해보면 <표 2>와

40) 연향의 끝에 하는 배례를, 처음에 하는 배례와 구별하기 위해 '예를 마친다'는 뜻의 禮畢로 항목 이름을 정했다.

41) 원문에서 이부분은 왕대비좌로 되어 있다. 1611년 연향의 주변은 선조의 계비인 仁穆王后로서 儀註 제목이 '王大妃殿進豐呈儀'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의식절차에서는 인목왕후를 지칭하는 용어로 대왕대비와 왕대비를 혼용해서 썼다. 본고에서는 혼동을 피하고자 '대왕대비'로 통일해서 썼다.

42) 각 연향의 의식 절차에 따른 정보는 2장에서 살펴본 연향 의주와 동일하므로 별도의 각주를 달지 않는다. 이후도 마찬가지이다.

〈표 2〉 1611년(광해군 3) 대비전 연향의 좌석 배치



같다.<sup>43)</sup>

2) 1630년(인조 8) 대비전 연향의 자리 배치  
자리 배치는 1611년(광해군 3)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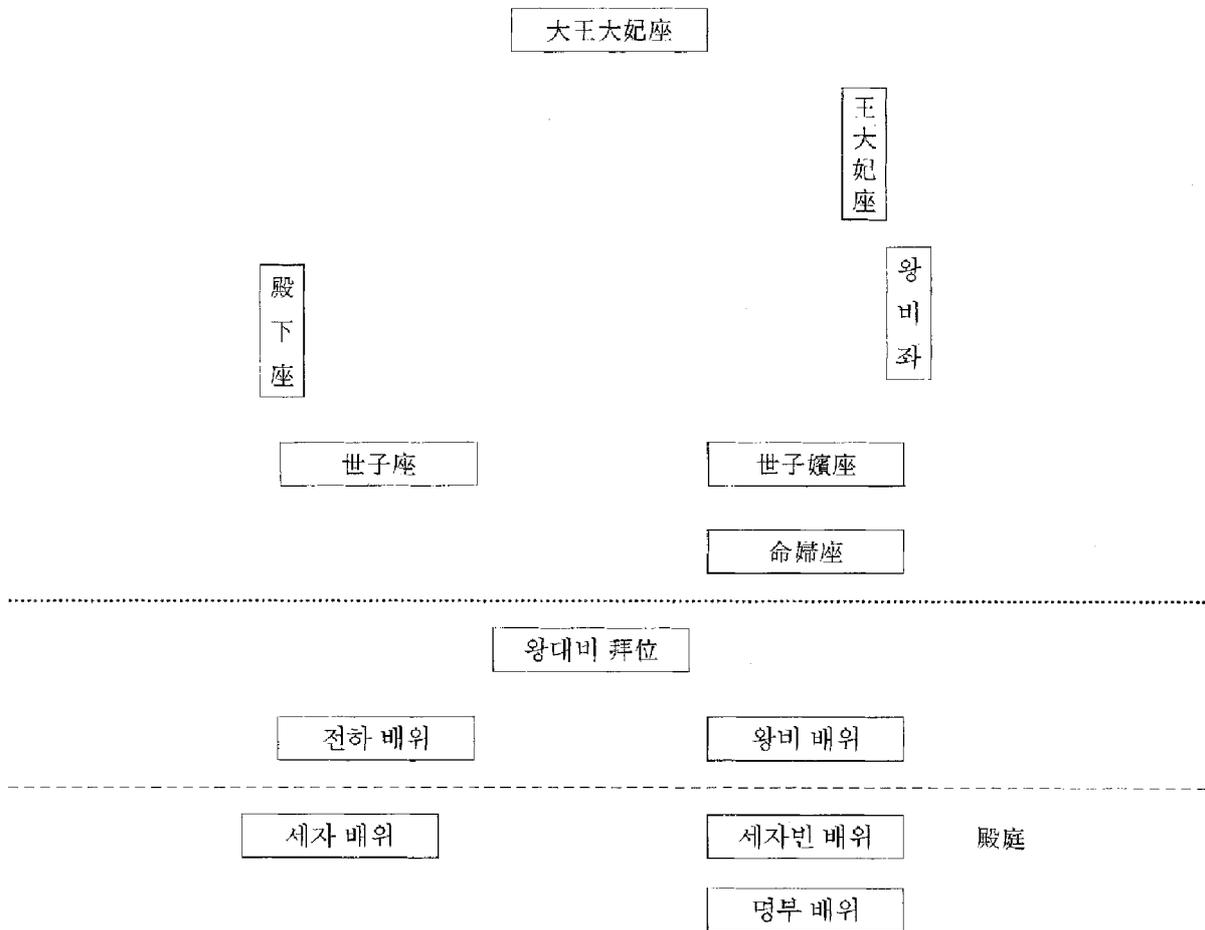
3) 1728년(영조 4) 대비전 연향의 자리 배치

1728년에는 1611년이나 1630년과 달리 왕대비가 더 참석했으므로 좌석배치가 다음과 같이 서로 다르게 되었다. 즉 왕실 최고 어른인 대왕대비가 북쪽에 자리하고, 두 번째 어른인 왕대비가 동쪽에서 서향했으므로, 왕이 서쪽에서 동향하게 되었다. 왕대비가 동쪽에 자리했으므로, 같은 여성인 왕비·세자빈·명부가 동편에 자리했는데, 이들의 서열을 구분하여 왕비는 서향, 세자빈과 명부는 왕비 남쪽에서 북향으로 자리했다. 마찬가지로 왕이 서쪽에 자리했으므로 세자가 서편에 자리했는데, 이들의 서열을 구분하여 왕은 동향으로, 세자는 그 남쪽에서 북향으로 자리했다. 이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43) 시각상의 편의를 위해 동향 또는 서향하는 것은 세로로 길게, 북향하는 것은 가로로 길게 표시했다.

<표 3> 1630년(인조 8)과 1728년(영조 4) 대비전 연향의 좌석 배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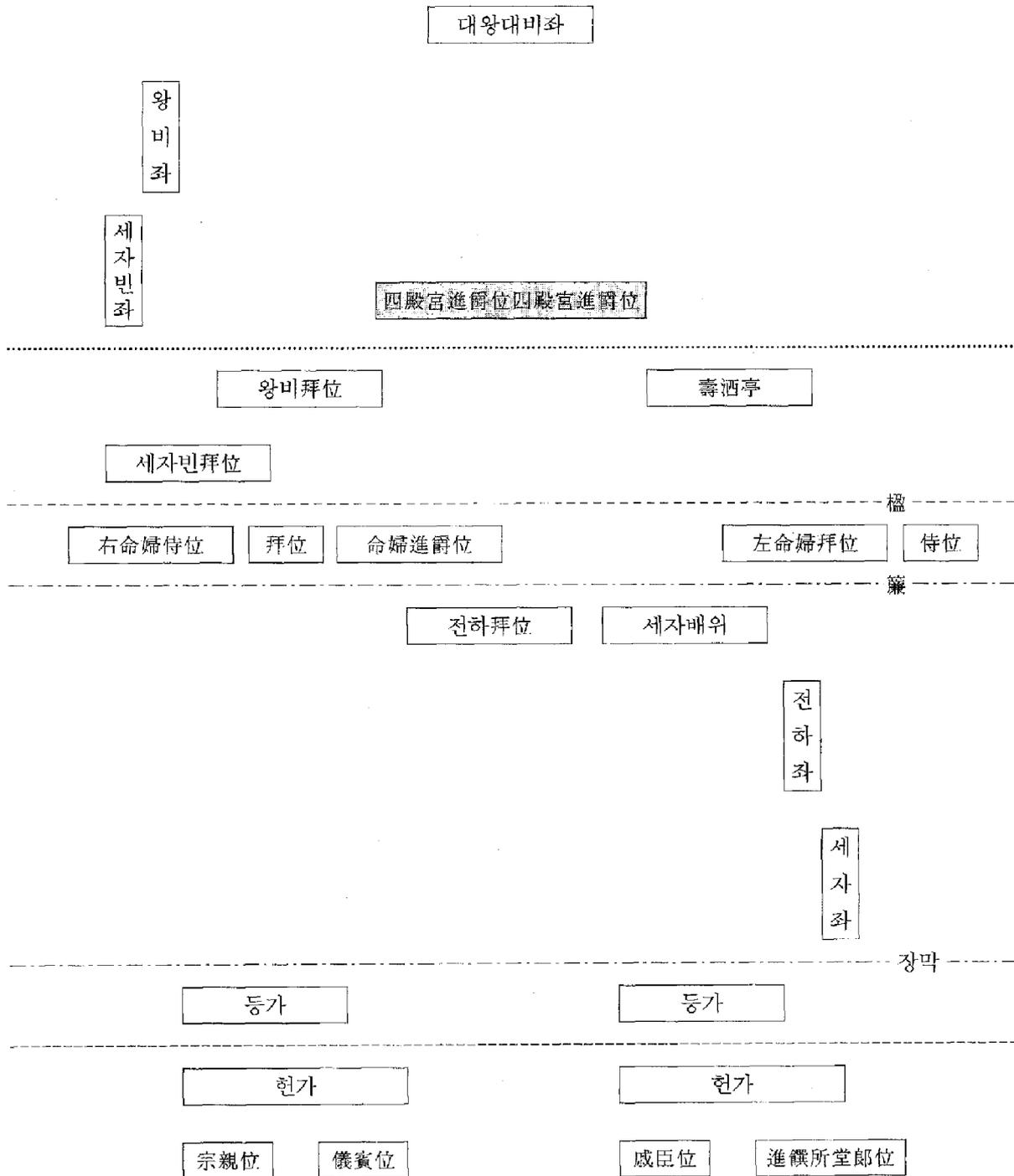
	북	동쪽에서 서향	서쪽에서 동향	남쪽에서 북향
1630년 연향	대왕대비	왕	왕비	세자(동쪽 가까이)
				세자빈(서쪽 가까이)
				명부(세자빈 뒤)
1728년 연향	대왕대비	왕대비	왕	세자(서쪽 가까이)
		왕비(왕대비좌 동쪽)		세자빈(동쪽 가까이)
				명부(세자빈 뒤)



4) 1887년(고종 24) 대비전 연향의 자리 배치

1887년(고종 24) 연향의 자리 배치는 다음과 같이 1728년(영조 4)의 자리배치와는 확연히 달라졌다.

<표 5> 1887년(고종 24) 대비전 연향의 좌석 배치<sup>44)</sup>



① 尙寢이 대왕대비좌를 萬慶殿 북벽에 남향하여 설치한다. 女執事가 전하 待坐位를 주렴 밖의 東階 위 동쪽 가까이에 서향으로 설치하고, 女官이 왕비 시좌위를 殿內 서쪽 가까이에 동향으로 설치하며, 여집사가 세자 시좌위를 전하좌 남쪽의 약간 동쪽에 서향으로 설치하고, 여관이

44) 『丁亥進儀儀軌』 卷首, 8b-9a.

세자빈 시좌위를 왕비좌 남쪽의 약간 서쪽에 동향으로 설치한다. 전빈이 좌우명부 侍位를 주렴 안의 東·西階 위에 북향으로 설치한다.

② 여집사가 전하 拜位를 주렴 밖의 중앙에 북향으로 설치하고, 여관이 왕비 배위를 주렴 안의 西階 위 서쪽 가까이에 북향으로 설치하며, 여집사가 세자 배위를 전하 배위의 바로 뒤에 북향으로 설치하고, 여관이 세자빈 배위를 왕비 배위의 뒤 서쪽 가까이에 북향으로 설치한다. 전빈이 좌우명부 배위를 櫺外的 주렴 안에 동서로 나누어 남쪽 가까이에 북향으로 설치한다.

③ 여관이 왕·왕비·세자·세자빈의 진작위를 櫺內 중앙에 북향으로 설치하고, 전빈이 命婦班首 進爵位를 櫺外的 주렴 안에서 서쪽 가까이에 북향으로 설치한다.

④ 여집사가 宗親·儀賓·戚臣·진찬소당상 낭청 배위를 大有門 밖 동서계 위에 북향으로 설치한다.

1728년 까지의 연향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珠簾을 늘어뜨리어 공간을 남성과 여성의 공간을 분명하게 구별했다. 왕비·세자빈·명부의 侍位와 拜位는 주렴 안에, 왕·세자의 侍位와 拜位는 주렴 밖에 설치했다.

둘째, 1728년 대비전 연향까지만 하더라도 왕과 세자 외의 남성은 참여하지 않았는데, 1887년 연향에서는 宗親·儀賓·戚臣·진찬소당상 낭청이 참여했다. 단 이들의 시위와 배위는 만경전 大有門 밖에 설치했다.

셋째, 악대 앞에 장막을 드리웠다. 이는 영조대(1724~1776)까지만 해도 대왕대비나 왕비, 또는 세자빈 등이 참여하는 內宴에 여악이 음악을 연주했지만, 1795년(정조 19) 혜경궁에게 올린 進饌에서부터 남자 악공들이 내연에서 연주한 것과 관련된다.<sup>45)</sup>

1848년(헌종 14) 대비전 연향에서도 이렇게 주렴을 드리워서 왕비·명부의 侍位와 拜位를 주렴 안에, 왕의 배위를 주렴 밖에 설치했으며,<sup>46)</sup> 1795년(정조 19) 혜경궁 진찬에서도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sup>47)</sup>

## 2. 拜禮

### 1) 1611년(광해군 3) 대비전 연향의 拜禮

내명부·세자빈·외명부·세자·왕비·왕의 순서로 창경궁 通明殿에 이르러 대기하고 있다가 대왕대비가 座에 오르면 다음과 같이 拜禮를 했다.

45) 김종수, 『조선시대 궁중연향과 여악연구』(민속원 개정판, 2003), 241~242쪽.

46) 『戊申進饌儀軌』 卷1.26ab.(奎 14372). 국립국악원에서 韓國音樂學資料叢書 제6권으로 영인 발행한 것이 있다.

47) 『園幸乙卯整理儀軌』 卷2.4ab.(奎 14532). 서울대 규장각에서 奎章閣資料叢書로 영인 발행한 것이 있다.

① 내명부가 典賓의 인도로 殿의 閣門 밖 東廂에서 접줄로 서향하여 선다. 세자빈이 守閤의 인도로 殿의 閣門 밖 西廂에서 동향하여 선다. 외명부가 전빈의 인도로 세자빈의 뒤에서 동향하여 선다. 세자가 익선관과 곤룡포를 갖추어 입고, 내시의 인도로 殿의 閣門에 이르고, 이어 女官의 인도로 함문 밖 東廂에, 내명부 서쪽의 남쪽 가까이에 선다. 왕비가 예복과 수식을 갖추고 상궁의 인도로 殿外 서쪽 가까이에 동향하여 선다. 전하가 익선관과 곤룡포를 갖추고 尙傳의 인도로 閣에 이르고, 이어 상궁의 인도로 殿外 道東에 서향하여 선다.

② 대왕대비가 예복을 갖추고 首飾을 더하고 상궁의 인도로 나와서 座에 오른다.

③ 상궁이 전하를 인도하여 동문을 통해 拜位에 이른다. 상궁이 왕비를 인도하여 서문을 통해 배위에 이른다. 왕과 왕비가 북향하여 四拜한 후, 각각 상궁의 인도로 東壁과 西壁에 있는 座에 가서 앉는다.

④ 세자가 典賓의 인도로 대왕대비 앞 배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사배한 후, 동향하여 왕에게 사배하고, 서향하여 왕비에게 사배하고, 다시 대왕대비 앞 拜位에 나아가 북향하여 선다.

④ 내명부·세자빈·외명부가 전빈의 인도로 西門을 통해 대왕대비 앞 배위에 나아가 북향하여 사배한 후, 동향하여 왕에게 사배하고 서향하여 왕비에게 사배한다.

즉 왕·왕비가 대왕대비에게 사배한 뒤 座에 앉고, 세자·내명부·세자빈·외명부가 대왕대비·왕·왕비에게 사배한다.

## 2) 1630년(인조 8) 대비전 연향의 拜禮

1630년 대비전 연향에는 內命婦가 참석하지 않았으며, 배례 의식은 다음과 같다. 1611년 의식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에 밑줄을 그어 놓았다.

① 대왕대비가 예복을 갖추고 首飾을 더하고 상궁의 인도로 나와서 座에 오른다.

② 상궁이 왕을 인도하여 동문을 통하여 배위로 나아간다. 상궁이 왕비를 인도하여 서문을 통해 배위로 나아간다. 전빈이 세자를 인도하여 배위에 나아간다. 왕·왕비·세자가 몸을 굽혔다가 사배한다. 상궁이 나누어 인도하여 왕과 왕비를 小次【왕의 小次는 東階 위에, 왕비 소차는 西階 위에 있다】로 모시고 가고, 전빈이 세자를 인도하여 便次【東階 아래에 있다】로 모시고 간다.

③ 전빈이 세자빈과 외명부를 인도하여 서문을 통하여 배위에 나아간다. 세자빈 이하가 사배하고 북향하여 선다. 전빈이 外庭命婦(幸臣의 부인)를 인도하여 편차【西階 아래에 있다】로 나간다.

④ 왕과 왕비가 상궁의 인도로 座에 앉는다. 세자가 전빈의 인도로 들어가 拜位에 나아가 왕 앞에서 동향하여 몸을 굽혔다가 사배한다. 서향하여 왕비에게 사배하기를 위와 같이 한다. 전빈이 세자를 인도하여 편차로 나간다.

⑤ 세자빈과 외명부(外庭命婦 제외)가 전빈의 인도로 왕 앞에서 동향하여 사배하고, 왕비 앞에서 서향하여 사배한다.

1630년 연향에서는 ‘왕·세자’와 외정명부가 같이 행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왕·왕

비·세자가 대왕대비에게 사배하고 각각 小次와 便次로 나간 뒤에, 세자빈과 외명부(외정명부 포함)가 들어와 대왕대비에게 사배하고, 외정명부가 나간 뒤에 다시 왕·왕비가 들어와 座에 앉았다. 세자가 들어와 왕·왕비에게 사배하고 편차로 나가고, 세자빈과 외명부(외정명부 제외)<sup>48)</sup>가 왕·왕비에게 사배했다.

1611년에는 ‘왕·왕비’ ‘세자’ ‘내명부·세자빈·외명부’의 세 組로 나누어 배례를 행한 반면에 1630년에는 ‘왕·왕비·세자’ ‘세자빈·외명부’의 두 組로 나누어 배례했는데, 이는 ‘兩殿과 兩宮(세자·세자빈)이 각각 배례하면 지리할 것 같다.’는 인조의 견해를 반영한 것이다.<sup>49)</sup>

### 3) 1728년(영조 4) 대비전 연향의 拜禮

1728년 대비전 연향의 배례 의식은 다음과 같다.

- ① 대왕대비가 翟衣와 首飾을 갖추고 상궁의 인도로 나와 座에 오른다.
- ② 왕대비가 상궁의 인도로 殿의 東門을 통해 拜位로 나아가 대왕대비에게 四拜하고 왕대비 좌에 앉는다.
- ③ 왕이 상궁의 인도로 西門을 통해 배위로 나아가고, 왕비가 상궁의 인도로 동문을 통해 배위로 나아가, 대왕대비에게 사배하고, 왕대비 앞에 나아가 동향하여 사배하고, 각각 좌에 앉는다.
- ④ 세자·세자빈·명부가 典賓의 인도로 배위에 나아가 대왕대비에게 사배하고, 동향하여 왕대비에게 사배하고 서향하여 왕에게 사배하며, 다시 동향하여 왕비에게 사배한다.

왕대비가 대왕대비에게 사배한 뒤에 座에 앉으면, 왕·왕비가 대왕대비·왕대비에게 사배하고 앉고, 세자·세자빈·命婦가 대왕대비·왕대비·왕·왕비에게 사배하는데, 이는 대왕대비 외에 왕대비가 더 참석하여 절차가 약간 달라진 것일 뿐 1611년 연향의 배례 의식과 같다.

1630년 연향의 배례에서는 왕·왕비·세자가 대왕대비에게 사배하고 소차와 편차로 나갔다가, 세자빈·외명부가 대왕대비에게 사배하고 외정명부가 편차로 나간 뒤에 왕과 왕비가 다시 들어오면 세자·세자빈·외명부가 왕·왕비에게 사배해서, 대왕대비에 대한 배례와 왕·왕비에 대한 배례에 약간 시간적인 차이가 있지만, 크게 보면 연향을 시작할 때 대왕대비·왕·왕비에게 사배한다는 점에서 1611년·1728년 연향과 서로 통한다.

48) 외명부 중 공주·옹주·왕자부인은 집안 사람들로써 家人의 禮를 행하면 되므로 무방하나, 신하의 의리가 있는 외정명부가 동향하여 왕에게 행례하는 것은 어렵게 여겼기 때문이다. <『豐呈都監儀軌』 30a. 甲子 九月 二十四日 “或以爲內命婦公主翁主王子君夫人 則雖以家人禮 同參入侍 似無所妨 至於外庭士大夫之妻 未增有朝謁之禮 而竝參於自上侍宴之時 座次禮節 種種難便云”>.

49) 『豐呈都監儀軌』 6b. “以豐呈儀註 傳曰 宴初行禮時 兩殿兩宮 各行拜禮 似爲支煩”

## 4) 1887년(고종 24) 대비전 연향의 拜禮

1887년 대비전 연향의 배례는 다음과 같다.

- ① 宗親·儀賓·戚臣·進饌所당상 낭청이 여집사의 인도로 拜位에 나아간다.  
좌우명부가 典賓의 인도로 배위에 나아가고, 세자빈이 女官의 인도로 배위에 나아간다. 세자가 여집사의 인도로 배위에 나아간다. 왕비가 女官의 인도로 배위에 나아간다. 왕이 여집사의 인도로 배위에 나아간다.
- ② 대왕대비가 翟衣와 首飾을 갖추고 상궁의 인도로 나와 座에 오른다.  
司膳 2인이 진찬약장을 부른다.
- ③ 왕·왕비·세자·세자빈이 몸을 굽혔다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 ④ 좌우명부·종친·의빈·척신·진찬소 당상 낭청이 몸을 굽혔다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1887년 연향의 배례 의식은 지금까지 살펴본 연향과 많이 다르다. 첫째, 1728년 연향까지는 侍宴者들이 殿에 이르러 대기하고 있다가 대왕대비가 座에 오른 후 拜位에 나아가 배례를 했지만, 1887년에는 대왕대비가 座에 오르기 전에 侍宴者들이 먼저 배위에 나아가 정렬해 있었다.

둘째, 1728년 연향까지는 시작할 때 대왕대비·왕·왕비에게 세자 이하가 사배했지만, 1887년에는 세자 이하가 왕·왕비에게 배례를 하지 않았다. 즉 대왕대비 앞에서는 ‘왕·왕비’나 ‘세자·세자빈’이나 다같이 자손의 입장에서 최고 어른인 대왕대비만을 높이고 있다.

## 3. 饌案 진설

## 1) 1611년(광해군 3) 대비전 연향의 饌案 진설

1611년 대비전 연향의 찬안 진설은 다음과 같이 하였다. 술을 올리기 전에 찬안은 비롯하여 꽃·膳 등을 올리지만, 찬안이 연향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음식상이므로, 이를 항목 제목으로 삼았다.

- ① 세자·내명부·세자빈·외명부가 모두 북향하여 무릎 꿇는다.
- ② 대왕대비·왕·왕비에게 尙食이 饌案을 올리고, 尙儀가 꽃을 올리며, 尙食이 膳<sup>50)</sup>을 올린다.
- ③ 세자·내명부·세자빈·외명부가 俯伏<sup>51)</sup>했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50) 膳: 희생으로 쓰는 소·양·돼지·닭 등으로 만든 음식. 대개 小膳으로는 쇠고기와 양고기 熟片을 썼고, 大膳으로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숙편을 썼다.

51) 俯伏: 상대방을 지극히 높이는 뜻으로 머리를 숙여 땅에 엎드림.

## 2) 1630년(인조 8) 대비전 연향의 饌案 진설

1630년 연향에서 찬안을 올리는 의식은 다음과 같다.

- ① 진빈이 세자를 인도하여 배위에 나아간다.
- ② 세자·세자빈·외명부(외정명부 제외)가 북향하여 무릎 꿇는다.
- ③ 대왕대비·왕·왕비에게 상식이 휘건과 찬안을 올리고, 尙儀가 꽃을 올리며 상식이 膳을 올린다.
- ④ 세자·세자빈·외명부(외정명부 제외)가 부복했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세자와 세자빈 이하가 배위에서 무릎 꿇고, 尙食과 尙儀가 饌案과 꽃 및 膳을 대왕대비·왕·왕비에게 올리는 것은 1611년과 같다. 다만 1611년에는 세자가 배위에 있다가 그대로 무릎 꿇지만, 1630년에는 세자가 왕과 왕비에게 사배한 후 편차에 나가 있었으므로, 다시 편차에서 배위로 나와 무릎 꿇고, 외명부 중 외정명부가 대왕대비에게 사배한 후 편차로 나갔으므로, 대왕대비·왕·왕비에게 찬안을 올릴 때 참여하지 않는 점이 다를 뿐이다.

## 3) 1728년(영조 4) 대비전 연향의 饌案 진설

1728년 대비전 연향의 찬안 진설 또한 앞의 두 연향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sup>52)</sup>

- ① 세자·세자빈·명부가 무릎 꿇는다.
- ② 대왕대비·왕대비·왕·왕비에게 尙食이 揮巾·饌案·別行果를 올리고, 尙儀가 꽃을 올리며, 상식이 鹽水를 올린다. 세자·세자빈·명부가 俯伏했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상식이 小膳을 올린다.
- ④ 세자·세자빈·명부가 부복했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女伶 2인이 尊崇樂章을 부른다.

## 4) 1887년(고종 24) 대비전 연향의 饌案 진설

1611년·1630년·1728년 연향에서는 進爵 절차 전에 대왕대비·왕·왕비에게 찬안과 小膳을 올렸으나, 1887년 연향에서는 進爵 절차 전에는 대왕대비에게만 찬안을 올리고, 왕·왕비에게는 올리지 않아서, 앞의 세 연향과 다르다.

- ① 尙食이 壽酒亭에서 酒器를 정돈한다.
- ② 왕·왕비·세자·세자빈·좌우명부·종친·의빈·척신이 무릎 꿇는다.
- ③ 대왕대비에게 揮巾兩과 匙楮를 올린다. 상식이 대왕대비에게 御饌을 올린다. 왕·왕비·

52) 1728년 연향에서는 앞의 두 연향에 비해 別行果와 鹽水를 더 올리고, 小膳을 올리기 전에 부복했다가 몸을 바로 하는 절차가 더 있으며, 小膳을 올린 뒤에 존송악장을 부르는 것이 추가되었으나, 세세한 것을 모두 지적하여 말하다 보면, 두드러진 큰 차이가 그 사이에 묻혀버리므로, 세세한 것은 언급하지 않는다. 이후도 마찬가지이다.

세자·세자빈·좌우명부·종친·외빈·척신이 부복했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④ 여집사가 왕에게 꽃을 올리고, 여관이 왕비에게 꽃을 올리며, 여집사가 세자에게, 여관이 세자빈에게 꽃을 올리며, 典飾이 좌우명부에게 꽃을 드리고, 여집사가 종친·외빈·척신에게 꽃을 드린다. 司唱 2인이 선창악장을 부른다.

#### 4. 進爵

장수를 기원하며 술을 올리는 進爵 절차는 연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 1) 1611년(광해군 3) 대비전 연향의 進爵

1611년 대비전 연향에서 진작 절차는 다음과 같이 행해졌다.

① 상궁이 왕을 인도하여 酒亭의 동쪽에 이르러 북향하여 선다. 尙食이 술을 떠서 제1잔을 무릎 꿇고 왕에게 올리면 왕이 받아서 대왕대비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다. 세자와 내명부 이하가 무릎 꿇는다. 왕이 상식에게 술잔을 주면 상식이 받아서 대왕대비좌 앞의 案에 놓는다.

왕이 부복했다가 일어나 拜位로 나아가 무릎 꿇는다. 典言이 대왕대비좌 앞에 당도하여 부복했다가 무릎 꿇고 왕의 致詞를 대신 읽는다. 尙儀가 대왕대비좌 앞에 당도하여 부복했다가 무릎 꿇고 傳旨를 아뢰고, 물러나 서향하여 무릎 꿇고 대왕대비의 傳旨를 선포한다.

대왕대비가 술을 들면 상식이 빈 잔을 받아 주정에 되놓는다. 왕이 부복했다가 일어나 몸을 펴고, 세자와 내명부 이하도 이와 같이 한다. 왕이 座로 가서 앉는다.

② 왕비가 왕이 행한 의식대로 대왕대비에게 제2잔과 치사를 올리면, 대왕대비가 傳旨를 내린다. 대왕대비가 술을 들면 座에 가서 앉는다.

③ 세자가 왕이 행한 의식대로 대왕대비에게 제3잔과 치사를 올리면, 대왕대비가 傳旨를 내린다. 尙儀가 세자에게 전지를 선포할 때 무릎 꿇지 않고 서며, 대왕대비가 술을 마신 뒤에 세자는 座에 가서 앉지 않고 여전히 拜位에 머물러 있다.

④ 內命婦 班首가 세자가 행한 의식대로 제4잔과 치사를 올리면, 대왕대비가 傳旨를 내린다.

⑤ 세자빈이 세자가 행한 의식대로 제5잔과 치사를 올린다.

⑥ 세자·내명부·세자빈·외명부가 부복했다가 일어나 四拜하고 몸을 바로 한다.

##### 2) 1630년(인조 8) 대비전 연향의 進爵

1630년 대비전 연향에서 進爵 절차는 다음과 같이 행해졌다.

① 상궁이 왕을 인도하여 酒亭의 동쪽에 이르러 북향하여 선다. 상식이 술을 떠서 무릎 꿇고 왕에게 제1잔을 올리면 왕이 받아서 대왕대비좌 앞에 나아가 무릎 꿇는다. 세자와 빈 이하가 무릎 꿇는다. 왕이 상식에게 爵을 주면 상식이 전해 받아서 대왕대비 좌 앞의 案에 놓는다.

왕이 부복했다가 일어나 拜位에 나아가 무릎 꿇는다. 典言이 대왕대비좌 앞에 당도하여 부복했다가 무릎 꿇고 致詞를 대신 읽는다. 尙儀가 대왕대비좌 앞에 당도하여 부복했다가 무릎 꿇고

傳旨을 아뢰고, 물리나 서향하여 무릎 꿇고 傳旨을 선포한다.

대왕대비가 술을 들면, 상식이 나아가 빈 爵을 받아 주정에 되놓는다. 왕이 부복했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세자와 세자빈 이하도 모두 부복했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상궁이 왕을 인도하여 小次로 나아간다.

② 왕비가 앞의 의식처럼 대왕대비에게 제2爵과 致詞를 올리면 대왕대비가 傳旨을 내린다. 대왕대비가 술을 들면 座에 가서 앉는다.

③ 세자가 대왕대비에게 제3爵과 致詞를 올리면 대왕대비가 傳旨을 내린다. 대왕대비가 술을 들면, 세자가 便次로 나간다.

④ 외정명부가 典賓의 인도로 다시 들어와 왕비 앞에 서향하여 사배례를 한다.

세자빈이 대왕대비에게 제4爵과 致詞를 올리면 대왕대비가 傳旨을 내린다.

⑤ 외명부반수가 대왕대비에게 제5爵과 致詞를 올리면 대왕대비가 傳旨을 내린다. 전빈이 외정명부를 인도하여 편차로 나간다.

대왕대비에게 술을 올리는 의식은 1611년의 경우와 같다. 다만 1611년에는 왕과 왕비가 대왕대비에게 술을 올리고 나서 座에 앉고, 세자가 拜位에 머물러 있었지만, 1630년에는 대왕대비에게 술을 올리고 나서 왕비는 座에 앉되 왕과 세자는 각각 小次와 便次로 나가는 점이 다르다.

1611년에는 왕과 세자가 爵을 올릴 때 외정명부를 포함한 외명부가 그대로 배위에 있지만, 1630년에는 왕과 세자가 爵을 올릴 때 외정명부가 자리를 피해 편차에서 머물러 있다가, 왕과 세자가 爵을 올리고서 소차와 편차로 나가면, 便次에 있었던 외정명부가 다시 들어와 왕비에게 사배하고, 대왕대비에게 爵을 올린 다음에 도로 편차로 나간 점이 다르다.

### 3) 1728년(영조 4) 대비전 연향의 進爵

1728년 연향에는 1611년이나 1630년에 비해 왕대비(宣懿王后) 한 분이 더 참여하여 두 대비전이 연향에 참여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왕대비가 대왕대비에게 제1작을 올린 뒤에 자리에 앉으면, 왕과 왕비가 각각 대왕대비와 왕대비에게 爵을 올리고 자리에 앉고, 세자와 세자빈 또한 각각 대왕대비와 왕대비에게 爵을 올렸다. 주빈이 대왕대비인만큼 致詞는 대왕대비에게만 올렸다.

① 「상궁이 왕대비를 인도하여 壽酒亭의 동쪽에 이르러 북향하여 선다. 상식이 제1爵을 따라서 무릎 꿇고 왕대비에게 올리면 왕대비가 받아서 대왕대비좌 앞에 이르러 무릎 꿇는다. 왕·왕비가 자리를 떠나 무릎 꿇고, 세자·세자빈 이하가 무릎 꿇는다. 왕대비가 爵을 상식에게 주면 상식이 받아서 대왕대비좌 앞의 案에 놓는다.

왕대비가 일어나 배위에 나아가 무릎 꿇는다. 典言이 대왕대비좌 앞에 당도하여 무릎 꿇고 致詞를 대신 읽고, 부복했다가 일어나 자리로 돌아간다. 尙儀가 대왕대비좌 앞에 당도하여 무릎 꿇고 傳旨을 아뢰고, 부복했다가 일어나 서향하여 무릎 꿇고 전지를 선포한다. 대왕대비가 술을

들면, 상식이 나아가 빈 작을 받아 주정에 되놓는다. 상식이 割肉을 올리고 만두를 올린다. 왕대비가 부복했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하고, 왕·왕비·세자·세자빈 이하가 모두 부복했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왕대비·왕·왕비가 상궁의 인도로 座에 앉으면, 상식이 왕대비·왕·왕비에게 만두를 올린다.

② 왕이 앞의 의식<sup>53)</sup>처럼 대왕대비에게 제2爵과 치사를 올리면, 대왕대비가 전지를 내린다. 대왕대비가 술을 들면, 왕이 부복했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하고, 왕비·세자·세자빈 이하가 모두 부복했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왕이 앞의 의식처럼 왕대비에게 작을 올린다.

왕·왕비가 상궁의 인도로 座에 앉는다. 상식이 각각 탕을 올린다.

③ 왕비가 앞의 의식처럼 대왕대비에게 제3爵과 치사를 올리면 대왕대비가 전지를 내린다. 대왕대비가 술을 들면 상식이 대왕대비·왕대비·왕에게 탕을 올린다. 왕비 이하가 부복했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왕비가 왕대비에게 작을 올리고, 상궁의 인도로 座에 앉는다. 상식이 왕비에게 탕을 올린다.

④ 세자가 앞의 의식처럼 대왕대비에게 제4작과 치사를 올리면 대왕대비가 전지를 내린다. 대왕대비가 술을 들면, 상식이 대왕대비·왕대비·왕·왕비에게 탕을 올린다. 세자가 왕대비에게 爵을 올린다. 전빈이 세자를 인도하여 배위로 나아간다.

⑤ 세자빈이 앞의 의식처럼 대왕대비에게 제5작과 치사를 올리면 대왕대비가 전지를 내린다. 세자가 왕대비에게 爵을 올린다. 전빈이 세자빈을 인도하여 배위로 나아간다.

⑥ 세자·세자빈·命婦가 몸을 굽혀 사배하고 몸을 바로 한다.

1630년 연향에서는 왕과 세자가 대왕대비에게 작을 올린 다음에 각각 소차와 편차로 나갔지만, 1728년 연향에서는 1611년 연향에서처럼 각각 座에 앉거나 拜位에 있었다. 그러나 1611년 연향에서는 爵을 올린 뒤 탕을 올리는 절차가 없지만, 1728년 연향에서는 爵을 올린 뒤에 대왕대비·왕대비·왕·왕비에게 탕을 올리는 절차가 있다.

#### (4) 1887년(고종 24) 대비전 연향의 進爵

1887년 대비전 연향에서는 왕·세자·왕비·세자빈의 진작위가 다 같이 주렴 안 楹內에 있지만, ‘왕·세자’의 배위와 侍宴位는 주렴 밖에 있고, ‘왕비·세자빈’의 배위와 侍宴位는 주렴 안에 있으며, 주렴 밖에서는 여집사가 시중들고 주렴 안에서는 여관이 시중들므로써, 주렴의 안과 밖이 분명하게 구별되는 점이 앞서 살펴본 세 연향과 다르다.

‘왕·세자’는 주렴 밖 배위에서 주렴 안 진작위에 이르러 작을 올리므로, 여집사와 여관이 번갈아 시중들고, ‘왕비·세자빈’의 진작 절차는 모두 주렴 안에서 행해지므로 여관만이 시중든다. 進爵行禮의 기본은 서로 같지만, 진작의 動線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생긴 현

53) ①에서 「」표시를 한 부분을 가리키되, 이중 ‘상식이 할육(割肉)을 올리고 만두를 올린다.’라는 절차는 제외한 것이다.

상이다.

주렴 안 楹內에 進爵位가 있는 왕·왕비·세자·세자빈은 壽酒亭에 가서 爵을 받아와 대왕대비에게 올린다. 그러나 좌명부 진작위는 주렴 안에 있긴 하되 楹外에 있어서, 대왕대비좌 및 壽酒亭과 어느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으므로, 좌명부 반수가 수주정에 가서 爵을 받아 오거나, 爵을 직접 尙食에게 전하지 않고, 이를 尙饌이 대신 해준다. 따라서 비교할 수 있도록 왕의 진작 절차 뿐 아니라 왕비와 좌명부 진작 절차도 자세히 소개하도록 한다.

① 여집사가 왕을 인도하여 簾外에 나아가면, 여관이 이어서 인도하여 수주정에 나아간다. 尙食이 제1爵을 따라서 몸을 굽히고 왕에게 올리면, 왕이 爵을 받아서 대왕대비좌 앞에 이른다. 왕·왕비·세자·세자빈이 무릎 꿇고, 좌우명부·종친·의빈·척신·진찬소당상낭청이 무릎 꿇는다. 왕이 爵을 상식에게 주면 상식이 받아서 대왕대비좌 앞에 올리고, 또 味數를 올린다. 왕·왕비·세자·세자빈이 부복했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하고, 좌우명부·종친·의빈·척신·진찬소 당상낭청이 부복했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여관이 왕을 인도하여 簾外로 나가면, 여집사가 인도하여 다시 拜位로 간다. 왕·왕비·세자·세자빈이 무릎 꿇고, 좌우명부·종친·의빈·척신·진찬소당상낭청이 무릎 꿇는다. 代致詞女執事가 簾外에 당도하여 북향하여 무릎 꿇고 致詞를 읽는다. 展箋女執事 2인이 箋案을 마주 들고 북향하여 무릎 꿇으면 讀箋女執事가 북향하여 무릎 꿇고 箋文을 읽는다. 대왕대비가 술을 마시면, 상식이 빈 잔을 받아 수주정에 되놓는다. 왕·왕비·세자·세자빈이 부복했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하고, 좌우명부·종친·의빈·척신·진찬소 당상낭청이 부복했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왕·왕비·세자·세자빈이 무릎 꿇고, 좌우명부·종친·의빈·척신·진찬소 당상낭청이 무릎 꿇는다. 상궁이 榻下에 당도하여 전교를 받들어 부복했다가 일어나 楹外의 簾內에서 동향하여 서서 전교를 선포한다. 왕·왕비·세자·세자빈이 부복했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하고, 좌우명부·종친·의빈·척신·진찬소 당상낭청이 부복했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왕이 여집사의 인도로 簾外의 座에 서향으로 앉는다. 상식이 대왕대비에게 鹽水·小膳·탕·大膳·만두를 올린다.

② 女官이 왕비를 인도하여 수주정에 나아간다. 尙食이 제2爵을 따라서 몸을 굽히고 왕비에게 올리면, 왕비가 받아서 대왕대비좌 앞에 이른다. 왕비·세자·세자빈이 무릎 꿇고, 좌우명부·종친·의빈·척신·진찬소당상 낭청이 무릎 꿇는다. 왕비가 爵을 상식에게 주면 상식이 받아서 대왕대비좌 앞에 올리고, 또 味數를 올린다. 왕비·세자·세자빈이 부복했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하고, 좌우명부·종친·의빈·척신·진찬소 당상낭청이 부복했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여관이 왕비를 인도하여 다시 拜位로 간다. 왕비·세자·세자빈이 무릎 꿇고, 좌우명부·종친·의빈·척신·진찬소당상낭청이 무릎 꿇는다. 代致詞女官이 榻前에 당도하여 북향하여 무릎 꿇고 致詞를 읽는다. 대왕대비가 술을 마시면, 상식이 빈 잔을 받아 수주정에 되놓는다. 왕비·세자·세자빈이 부복했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하고, 좌우명부·종친·의빈·척신·진찬소당상 낭청이 부복했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왕비·세자·세자빈이 무릎 꿇고, 좌우명부·종친·의빈·척신·진찬소당상 낭청이 무릎 꿇는다. 상궁이 榻下에 당도하여 전교를 받들

어 부복했다가 일어나階에서 서향하여 서서 전교를 선포한다. 왕비·세자·세자빈이 부복했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하고, 좌우명부·종친·의빈·척신·진찬소 당상낭청이 부복했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왕비가 여관의 인도로 簾內의 座에 동향으로 앉는다. 상식이 대왕대비에게 차[茶]를 올린다.

③ 세자가 앞의 의식처럼 제3작과 致詞·箋文을 올린다. 대왕대비가 술을 마시고 傳敎를 내리면, 세자가 여집사의 인도로 簾外의 座에 서향으로 앉는다.

④ 세자빈이 앞의 의식처럼 제4작과 치사를 올린다. 대왕대비가 술을 마시고 傳敎를 내리면, 세자빈이 여관의 인도로 簾內의 座에 동향으로 앉는다.

여집사가 왕에게 揮巾과 匙標을 올리고, 여관이 왕비에게 휘건과 시접을 올리며, 여집사가 세자에게 휘건과 시접을, 여관이 세자빈에게 휘건과 시접을 올린다. 여집사가 왕에게 饌果案을 올리고, 여관이 여집사에게서 찬과안을 받아서 왕비에게 올리며, 여집사가 세자에게 찬과안을, 여관이 여집사에게서 饌果案을 받아서 세자빈에게 올린다.

⑤ 전빈이 左命婦 班首를 인도하여 進爵位에 나아간다. 좌명부 반수 이하가 무릎 꿇는다. 尙食이 제5작을 따라서 尙饌에게 주고, 상찬은 이를 받아서 좌명부 반수에게 전해준다. 좌명부 반수는 무릎 꿇고 爵을 받았다가 도로 상찬에게 주고, 상찬이 이를 받아서 상식에게 전하면, 상식이 爵을 받아서 무릎 꿇고 대왕대비좌 앞에 올린다. 味數를 올린다. 좌명부 반수가 부복했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전빈이 좌명부 반수를 인도하여 자리로 돌아간다. 좌명부 반수 이하가 무릎 꿇으면 代致詞女官이 榻前에 당도하여 북향하여 무릎 꿇고 致詞를 읽는다. 대왕대비가 술을 마시면, 상식이 빈 잔을 받아 수주정에 되놓는다. 좌명부 반수 이하가 부복했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좌우명부 이하가 무릎 꿇는다. 상궁이 榻下에 당도하여 무릎 꿇고 전교를 받들어 부복했다가 일어나 楹外의 簾內에서 중앙에서 남향하여 서서 전교를 선포한다. 좌명부 반수 이하가 부복했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⑥ 우명부·종친·의빈·척신이 각각 致詞를 올린다.

⑦ 세자빈·세자·왕비·왕이 여관 또는 여집사의 인도로 다시 拜位로 나아간다. 왕·왕비·세자·세자빈이 무릎 꿇고, 좌우명부·종친·의빈·척신·진찬소 당상낭청이 무릎 꿇는다. 왕·왕비·세자·세자빈이 세 번 머리를 조아리고, 좌우명부·종친·의빈·척신·진찬소 당상낭청이 세 번 머리를 조아린다. 왕·왕비·세자·세자빈이 손을 모아 이마에 대고 천세, 천천세를 외치고, 좌우명부·종친·의빈·척신·진찬소 당상낭청이 손을 모아 이마에 대고 천세, 천천세를 외친다. 왕·왕비·세자·세자빈이 부복했다가 일어나 사배를 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며, 좌우명부·종친·의빈·척신·진찬소 당상낭청이 부복했다가 일어나 사배를 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주렴을 드리우고 안과 밖을 구분함에 따라 생긴 차이점 외에 또 앞의 세 연향과 다른 점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728년까지의 연향에서는 대왕대비에게 爵과 致詞를 올리면 대왕대비가 전교를 내리고 술을 마셨는데, 1887년에는 대왕대비에게 爵과 致詞를 올리면 대왕대비가 술을 마시고 나서 전교를 내렸다.

둘째, 1728년까지의 연향에서는 進爵 절차 前에 대왕대비에게 찬안을 올리면서, 왕·(왕대비:1728년 연향에만 해당)·왕비의 찬안도 같이 올렸지만, 1887년 연향에서는 제4爵을 올린 뒤 왕과 왕비에게 饌案을 올렸다. 그와 동시에 세자와 세자빈에게도 찬안을 바쳤다.

셋째, 대왕대비에게 爵과 致詞를 모두 올린 후, 三叩頭(세 번 머리를 조아림)하고 山呼(천세를 외침)하는 절차가 첨가되었다.

넷째, 1728년까지의 세차례 연향에서는 尙儀가 무릎 꿇고 대왕대비의 傳旨를 왕과 왕비에게 선포했는데, 1887년 연향에서는 상궁이 서서 傳旨를 선포했다.

## 5. 侍宴者 향응

진작은 주빈의 장수를 기원하며 술과 음식을 올리는 자리이고, 侍宴者 향응은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주빈과 더불어 음식과 술을 마시며 같이 즐기는 자리이다.

### 1) 1611년(광해군 3) 대비전 연향의 侍宴者 향응

제6잔부터는 다음과 같이 세자·내명부·세자빈·외명부가 자리에 앉아, 대왕대비·왕·왕비와 더불어 술을 같이 마신다.

① 세자·내명부·세자빈·외명부가 典賓의 인도로 각각 자리에 앉는다. 典膳이 세자·내명부·세자빈의 饌卓을 차리고 꽃을 드리며, 여집사가 외명부의 찬탁을 차리고 꽃을 드린다.

상식이 대왕대비·왕·왕비에게 탕을 올린다. 세자와 내명부 이하가 자리를 벗어나 부복했다가, 탕 올리는 것을 마치면 자리로 돌아온다.【탕과 술을 올릴 때는 이같이 한다.】

전선이 세자·내명부·세자빈에게 탕을 바친다. 여집사가 외명부에게 탕을 바친다.

② 尙食이 대왕대비·왕·왕비에게 술을 올린다. 전선이 세자·내명부·세자빈에게 술을 바친다. 여집사가 외명부에게 술을 바친다.

탕을 올리고 술을 올리기를 위와 같이 하여 술이 9순배 돌면 상식이 大膳을 올린다. 典膳이 세자·내명부·세자빈에게 膳을 바친다. 여집사가 외명부에게 膳을 바친다.

③ 상식이 왕대비·왕·왕비와 앞에 나아와 案을 물린다. 전선이 세자·내명부·세자빈 床卓을 물린다. 여집사가 외명부 상탁을 물린다.

### 2) 1630년(인조 8) 대비전 연향의 侍宴者 향응

1611년에는 제1잔부터 제5잔까지 왕·왕비·세자·세자빈·내명부가 각각 대왕대비에게 올리고, 제6잔부터 尙食·典膳·여집사 같은 差備가 대왕대비·왕·왕비·세자·세자빈·내명부·외명부에게 각각 술을 올려서 9순배에 이르면 그쳤지만, 1630년에는 제1爵에서 제5爵까지 왕·왕비·세자·세자빈·외명부가 각각 대왕대비에게 술을 올려서 1차 마무리짓고, 2차에서, 즉 시연자 향응 절차에서 왕·왕비·세자·세자빈이 각각 대왕대비에게

계 술을 올리고, 대왕대비는 이들에게 손수 술을 내려주어, 9순배(5작+4잔)를 행했다. 제2차에서 대왕대비가 손수 술을 내려주지 않는 자들에게는 차비가 술을 돌렸다. 예를 들면, 왕이 대왕대비에게 제1잔을 올리면, 왕에게 대왕대비가 손수 술을 내려주되, 나머지 왕비 이하에게는 差備가 술을 바치고, 왕비가 제2잔을 올리면, 왕비에게 대왕대비가 손수 술을 내려주되, 나머지 세자 이하에게는 差備가 술을 바쳤다.

진작 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시연자 향응 절차에서도 왕과 세자는 대왕대비에게 술을 올린 후 각각 소차와 편차로 나갔고, 외정명부는 왕과 세자가 나간 뒤에 잔치 자리로 들어왔다.

① 왕이 상궁의 인도로 들어와 座에 앉는다. 【왕비가 자리를 약간 벗어난다. 명부 이하도 이와 같이 한다.】 세자·세자빈·공주·옹주·왕자부인이 전빈의 인도로 각각 座에 앉는다. 典膳이 세자와 빈 이하의 찬탁을 차리고 꽃을 드린다.

상식이 대왕대비·왕·왕비에게 탕을 올린다. 세자와 빈 이하가 자리를 벗어나 부복했다가, 탕 올리는 것이 끝나면 자리로 돌아온다.【羹과 湯을 올릴 때는 이와 같이 한다.】 전선이 세자와 세자빈 이하에게 탕을 바친다.

② 왕이 상궁의 인도로 酒亭의 동쪽에 이르러 북향하여 선다. 상식이 잔에 술을 따라 전하에게 올리면, 전하가 잔을 받아 대왕대비좌 앞에 이르러 무릎 꿇는다. 상식이 나아가 이를 전해 받아 무릎 꿇고 대왕대비 앞에 올린다. 대왕대비가 잔을 잡으면 전하가 부복한다. 대왕대비가 마시면 상식이 빈 잔을 받아서 전하에게 드리고 전하는 빈잔을 받아서 물러나 주정의 서쪽에 선다. 상식이 무릎 꿇고 잔을 받는다.

전하가 다시 酒亭의 동쪽에 서면 상식이 잔에 술을 따라 전하에게 올린다. 전하가 잔을 받아 대왕대비좌 앞에 이르러 무릎 꿇는다. 상식이 나아가 이를 전해 받아 무릎 꿇고 대왕대비 앞에 올린다. 대왕대비가 잔을 잡았다가 다시 상식에게 준다. 상식이 잔을 받아서 전하에게 올리면 전하가 받아서 마신다. 다 마시면 부복했다가 일어나 東偏으로 해서 다시 주정에 이른다. 상식이 무릎 꿇고 빈잔을 받는다. 왕이 상궁의 인도로 座에 앉는다.

상식이 왕비에게 술을 올린다. 전선이 세자와 세자빈 이하에게 술을 바친다. 왕이 상궁의 인도로 소차로 나간다.

③ 왕비가 앞의 의식처럼 제2잔을 대왕대비에게 올리고, 대왕대비가 몸소 내려주는 술을 마시고 座에 앉는다. 전선이 세자·세자빈 이하에게 술을 바친다.

④ 세자가 제3잔을 대왕대비에게 올리고, 대왕대비가 몸소 내려주는 술을 마신다. 세자가 전빈의 인도로 자리를 벗어나 무릎 꿇는다. 상식이 왕비에게 술잔을 올리어, 왕비가 이를 잡으면 세자가 부복한다. 상식이 무릎 꿇고 빈 잔을 받는다. 세자가 전빈의 인도로 자리에 돌아간다. 典膳이 세자빈 이하에게 술을 바친다. 전선이 세자를 인도하여 편차로 나간다.

⑤ 외정명부가 전빈의 인도로 座에 앉는다. 여집사가 외정명부의 후를 차리고 꽃을 드린다. 상식이 대왕대비·왕비에게 탕을 올린다. 전선이 세자빈에게 탕을 바치고, 여집사가 외명부 이하에게 탕을 드린다.

세자빈이 제4잔을 대왕대비에게 올리고 대왕대비가 내려주는 술을 마신다. 외명부 이하도 마찬가지로 잔차지이다. 매번 대왕대비에게 잔을 올린 뒤에는 상식이 왕비 이하에게 술을 바친다. 술이 9순

배 돌면 상식이 大膳을 올린다.

⑨ 상식이 대왕대비·왕·왕비의 饌案을 물린다. 전찬이 세자와 세자빈의 卓을 물린다. 여집사가 외명부의 卓을 물린다.

1611년 연향의 시연자 향응 절차에서는 대왕대비·왕·왕비·세자·세자빈·命婦 등에게 差備가 모두 술을 올렸지만, 1630년 연향의 시연자 향응 절차에서는 왕·왕비·세자·세자빈이 또 다시 각각 대왕대비에게 술을 올리고, 대왕대비가 이들에게 몸소 술을 내려주어, 親愛의 정을 표했다.

### 3) 1728년(영조 4) 대비전 연향의 侍宴者 향응

1728년 연향의 시연자 향응 절차는 대체로 1630년과 같다.

① 세자·세자빈·명부가 각각 자리에 앉는다. 典饌이 세자와 세자빈의 饌卓을 차리고 별행과를 바친다. 명부 이하의 찬탁을 차리고 꽃을 드린다.

상식이 대왕대비·왕대비·왕·왕비에게 탕을 올린다. 세자와 세자빈 이하가 자리를 벗어나 부복했다가, 올리기를 마치면 자리로 돌아간다.【蓋과 湯을 올릴 때는 이와 같이 한다.】전찬이 세자와 세자빈 이하에게 탕을 바친다.

② 상궁이 왕대비를 인도하여 수주정의 동쪽으로 나아가 북향하여 선다. 상식이 제1잔에 술을 따라 무릎 꿇고 왕대비에게 올린다. 왕대비가 잔을 받아 대왕대비좌 앞으로 나아가 무릎 꿇는다. 왕·왕비·세자·세자빈 이하가 모두 자리를 벗어나 무릎 꿇는다. 왕대비가 잔을 상식에게 주면 상식이 이를 전해 받아 무릎 꿇고 대왕대비 앞에 올린다. 대왕대비가 잔을 잡으면 왕대비가 부복한다. 대왕대비가 마시면 상식이 빈 잔을 받아서 왕대비에게 올리고 왕대비는 빈잔을 받아서 酒亭의 서쪽으로 물러 선다. 상식이 무릎 꿇고 빈잔을 받는다.

왕대비가 주정의 뒤로 해서 다시 그 동쪽에 선다. 상식이 잔에 술을 따라 무릎 꿇고 왕대비에게 올린다. 왕대비가 잔을 받아 대왕대비좌 앞으로 나아가 무릎 꿇는다. 상식이 나아가 이를 전해 받아 무릎 꿇고 대왕대비 앞에 올린다. 대왕대비가 잔을 잡았다가 다시 상식에게 준다. 상식이 잔을 받아서 왕대비에게 올리면 왕대비가 받아서 마신다. 다 마시면 상식이 빈 잔을 받아 주정에 되놓는다. 왕대비가 부복했다가 몸을 바로 한다. 왕·왕비·세자·세자빈 이하가 모두 부복했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왕대비·왕·왕비가 상궁의 인도로 座에 앉는다. 세자와 세자빈 이하도 자리에 앉는다. 상식이 왕·왕비에게 술을 올린다. 전찬이 세자와 세자빈 이하에게 술을 바친다.

상식이 각각 대왕대비·왕대비·왕·왕비에게 탕을 올린다. 세자와 세자빈 이하가 모두 자리를 벗어나 부복하고, 올리기를 마치면 자리에 앉는다. 전찬이 세자와 세자빈 이하에게 탕을 바친다.

③ 왕이 앞의 의식대로 대왕대비에게 제2잔을 올리고, 대왕대비가 내려주는 술을 마시고, 왕대비에게 술을 올린다. 상식이 왕비에게 술을 올리고 전찬이 세자와 세자빈 이하에게 술을 바치며, 상식과 전찬이 각각 대왕대비 이하 모두에게 탕을 올린다.

④ 왕비가 앞의 의식대로 대왕대비에게 제3잔을 올리고, 대왕대비가 내려주는 술을 마시고, 왕대비에게 술을 올린다. 상식이 왕에게 술을 올리고 전찬이 세자와 세자빈 이하에게 술을 바치며, 상식과 전찬이 각각 대왕대비 이하 모두에게 탕을 올린다.

⑤ 세자가 앞의 의식대로 대왕대비에게 제4잔을 올리고, 대왕대비가 내려주는 술을 마시고, 왕대비에게 술을 올린다. 상식이 왕과 왕비에게 술을 올리고, 전찬이 세자빈 이하에게 술을 바친다. 술이 9순배 들면 상식이 小膳을 물리고 大膳을 올린다. 典饌이 세자와 세자빈 이하에게 膳을 바친다.

⑥ 상식이 대왕대비·왕대비·왕·왕비의 饌案을 물리고, 전찬이 세자 이하의 饌卓을 물린다.

#### 4) 1887년(고종 24) 대비전 연향의 侍宴者 향응

1630년과 1728년의 두 연향의 시연자 향응 절차에서는 왕·왕비·세자 등이 각각 대왕대비에게 술을 올리고, 대왕대비가 몸소 내려주는 술을 마시며, 동시에 그 외의 사람들은 차비가 바치는 술을 마시었다. 그러나 1887년 연향의 시연자 향응 절차에서는 왕·왕비·세자·세자빈 등이 대왕대비에게 술을 올리지 않으며, 대왕대비가 몸소 내려주는 술을 받아서 마시기만 한다. 즉 1630년과 1728년에는 왕·왕비·세자 등이 대왕대비가 내려준 술을 마실 때, 나머지 사람들 또한 차비가 바친 술을 마셨지만, 1887년에는 왕·왕비·세자·세자빈 등이 대왕대비가 내려준 술을 마시는 절차가 끝난 뒤에야 나머지 사람들에게 차비가 술을 돌렸다. 1887년 연향의 시연자 향응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왕·왕비·세자·세자빈이 여집사 또는 여관의 인도로 다시 座에 앉는다. 좌우명부 및 종친·의빈·척신·진찬소당상 낭청이 전빈 또는 여집사의 인도로 자리 앉는다.

典膳이 좌우명부 이하의 饌床을 진설하고, 여집사가 종친·의빈·척신·진찬소 당상낭청의 찬상을 진설한다.

② 왕이 여집사의 인도로 簾外에 나아가고, 이어서 여관의 인도로 대왕대비좌 앞으로 나아가 무릎 꿇는다. 여집사가 왕의 酒亭에 나아가 爵에 술을 따라서 簾外로 받들고 가면, 상식이 받아서 무릎 꿇고 대왕대비좌 앞에 올린다. 대왕대비가 이를 받아서 상식에게 주면 상식이 무릎 꿇고 爵을 받아 몸을 굽히고 왕에게 올리고, 왕이 이를 마신다.【在位者들이 모두 자리를 벗어나 몸을 굽힌다.】왕이 작을 잡고 부복했다가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왕이 여관의 인도로 簾外로 나아가고, 이어 여집사의 인도로 주정에 이르면 여집사가 무릎 꿇고 빈 爵을 받아 주정에 되놓는다.【在位者들이 다시 자리에 앉는다.】왕이 여집사의 인도로 座에 앉으면 왕에게 味數를 올린다.

③ 왕비가 앞의 의식처럼 대왕대비가 내려준 술을 마신다. 단 왕비는 왕과 달리 주렴 안에 있으므로 곧바로 여관의 인도로 대왕대비좌 앞으로 나아가거나 주정으로 나아간다. 왕비가 여관의 인도로 座에 앉으면 미수를 올린다.

④ 세자가 앞의 의식처럼 대왕대비가 내려준 술을 마신다. 세자가 여집사의 인도로 座에 앉으면 味數를 올린다.

⑤ 세자빈이 앞의 의식처럼 대왕대비가 내려준 술을 마신다. 세자빈이 여관의 인도로 座에 앉으면 미수를 올린다.

왕·왕비·세자·세자빈에게, 각각 여집사 또는 여관이 탕·만두·차를 올린다.

⑥ 상식이 대왕대비에게 별행과를 올리고, 여집사 또는 여관이 각각 왕·왕비·세자·세자빈에게 별행과를 올린다. 典膳이 좌우명부에게 술을 드리고, 여집사가 종친·의빈·척신·진찬소당상 낭청에게 술을 드린다.【자리를 벗어나 무릎 꿇고 마시고 자리에 앉는다.】司唱 2인이 동·서로 나누어 후창악장을 부른다.

⑦ 상식이 대왕대비의 饌果案을 물리면, 여집사가 이를 받아 밖으로 내가고, 여집사가 왕의 饌果案을 물리며, 여관이 왕비의 찬과안을 물리면 여집사가 이를 받아 밖으로 내가고, 여집사가 세자의 찬과안을 물리고, 여관이 세자빈의 찬과안을 물리면 여집사가 이를 받아 밖으로 내간다. 전선이 좌우명부의 찬상을 물리고, 여집사가 종친·의빈·척신·진찬소당상 낭청의 찬상을 물린다.

## 6. 禮畢

### 1) 1611년 대비전 연향의 禮畢

① 전빈이 세자와 내명부 이하를 나누어 인도하여 배위로 내려간다. 상궁이 왕과 왕비를 나누어 인도하여 배위로 나아간다.

② 왕과 왕비가 사배하고 나간다. 세자와 내명부 이하가 사배한다.

③ 상의가 대왕대비좌 앞에 당도하여 부복했다가 꿇어앉아 예가 끝났음을 아뢰고 부복했다가 일어나 물러난다. 대왕대비가 좌에서 내려온다.

전빈이 세자와 내명부 이하를 인도하여 차례차례 나간다.

### 2) 1630년 대비전 연향의 禮畢

외정명부와 왕이 서로 자리를 피하여 왕·왕비·세자가 사배할 때에는 외정명부가 편차로 나가 있다가, 왕·왕비·세자가 사배하고 나간 뒤에 다시 잔치자리로 들어와 사배하는 점을 제외하고는 1611년의 禮畢 절차와 비슷하다.

① 전빈이 외정명부를 인도하여 편차로 나간다.

② 전빈이 세자와 빈 이하를 나누어 인도하여 배위로 내려간다.

상궁이 왕과 왕비를 나누어 인도하여 배위로 나아간다.

③ 왕·왕비·세자가 사배한다. 상궁이 왕과 왕비를 인도하여 나간다. 전빈이 세자를 인도하여 나간다.

④ 전빈이 외정명부를 인도하여 자리에 나아간다. 세자빈과 외명부가 사배한다.

⑤ 상의가 대왕대비좌 앞에 당도하여 부복했다가 꿇어앉아 예가 끝났음을 아뢰고 부복했다가 일어나 물러난다. 대왕대비가 좌에서 내려온다. 전빈이 세자빈 이하를 인도하여 나간다.

## 3) 1728년 대비전 연향의 禮畢

왕대비·왕·왕비가 사배하고 나간 뒤에 세자와 세자빈 이하가 사배하고, 대왕대비가 나간 뒤에 세자와 세자빈 이하가 나간다는 점에서 1611년 연향과 비슷하다.

- ① 전빈이 세자·세자빈·명부를 인도하여 배위로 내려간다. 상궁이 왕·왕대비·왕비를 인도하여 배위로 나아간다.
- ② 왕대비가 사배한다. 상궁이 왕대비를 인도하여 나간다.
- ③ 왕·왕비가 사배한다. 상궁이 왕과 왕비를 인도하여 나간다.
- ④ 세자와 세자빈 이하가 사배한다.
- ⑤ 상의가 대왕대비좌 앞에 당도하여 부복했다가 무릎 꿇고 예가 끝났음을 아뢴다. 대왕대비가 좌에서 내려온다. 전빈이 세자와 세자빈 이하를 인도하여 나간다.

## 4) 1887년 대비전 연향의 禮畢

앞의 세 연향에서는 ‘왕·왕비’가 먼저 배례를 하고 나가며, 세자 또는 세자빈 이하가 사배하고 나서, 대왕대비가 나간 뒤에 이들이 나갔으나, 1887년 연향에서는 왕 이하가 모두 같이 사배를 하며, 대왕대비가 座에서 내려 나간 뒤에야 비로소 왕 이하가 나갔다.

- ① 여집사가 종친·의빈·척신·진찬소 당상낭청을 인도하여 배위로 나아가고, 전빈이 좌우 명부를 인도하여 배위로 나아간다. 여관 또는 여집사의 인도로 세자빈과 세자가 배위로 나아간다. 여관 또는 여집사의 인도로 왕비와 왕이 배위로 나아간다.
- ② 왕·왕비·세자·세자빈이 몸을 굽혔다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하며, 좌우명부·종친·의빈·척신·진찬소 당상낭청이 몸을 굽혔다가 사배하고 일어나 몸을 바로 한다.
- ③ 상궁이 무릎 꿇고 예가 끝났음을 아뢴다. 대왕대비가 座에서 내려와 大次로 나간다. 치사·전문함을 奉入한다.
- ④ 여집사와 여관 및 전빈이 각각 왕·왕비·세자·세자빈·좌우명부·종친·의빈·척신·진찬소 당상낭청을 인도하여 나간다.

## IV. 맺음말

지금까지 살펴본 의식 절차를 바탕으로 宴禮의 변천을 서술함으로써 글을 맺도록 하겠다.

1728년 대비전 연향까지는 侍宴者가 왕대비·왕·왕비·세자·세자빈·命婦로 한정되나, 1887년 연향에서는 이외에 종친·의빈·척신·진찬소 당상낭청도 참석했다. 内外가 엄격하던 당시에 종친·의빈·척신 등을 참석할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주렴을 설치하여 남성과 여성의 공간을 분명하게 구별했다. 즉 전자<sup>54)</sup>에서는 왕·왕비·세자·세자빈·命婦의 侍宴位가 다같이 殿內에 있었으나, 후자에서는 珠簾을 殿의 기단에 설치하여, 왕비·

세자빈·命婦의 시연위는 주렴 안에, 왕·세자의 시연위는 주렴 밖 補階에, 종친·의빈·척신·진찬소 당상낭청의 시연위는 그 밖에 둠으로써 內外하였다.

1728년 대비전 연향까지는 세자·세자빈의 侍宴位가 북향하고 있으나, 1887년 연향에서는 서향 또는 동향하고 있어서, 세자와 세자빈의 의례가 격상되었다. 이는 전자에서는 왕·왕비의 饌案을 進爵 절차 전에 올리고, 세자와 세자빈의 饌卓을 侍宴者 향응 절차에서 命婦 찬탁과 함께 진설했으나, 후자에서는 왕·왕비·세자·세자빈이 4각을 대왕대비에게 올린 뒤에, 즉 進爵 절차에서 세자와 세자빈의 饌案을 왕·왕비의 찬안과 함께 진설한 것에서도 나타난다.

반면에 왕·왕비의 의례는 격하되었다. 1728년까지의 연향에서는 시작할 때 세자·세자빈·命婦 등이 대왕대비에게 四拜를 하고 바로 이어서 왕·왕비에게 사배를 했는데, 1887년 연향에서는 왕·왕비에게 사배를 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전자에서는 進爵 前, 주빈인 대왕대비에게 찬안을 올릴 때 왕·왕비에게도 찬안을 같이 올렸으나, 후자에서는 進爵 前에는 대왕대비에게만 찬안을 올리고, 4爵을 대왕대비에게 올린 후에 비로소 왕·왕비에게 찬안을 올렸다.

전자에서는 대왕대비의 전지를 선포할 때 尙儀가 왕과 왕비 앞에서 무릎 꿇었으나 후자에서는 상궁이 서서 선포했다.

전자에서는 연향을 마칠 때 왕·왕비가 대왕대비에게 사배를 하고 바로 나가서, 세자·세자빈이 대왕대비에게 사배하거나, 대왕대비가 座에서 내려오는 것을 기다리지 않았는데, 후자에서는 왕·왕비가 세자와 세자빈 이하와 함께 대왕대비에게 사배하고, 대왕대비가 座에서 내려와 밖으로 나간 뒤에야 비로소 나갔다.

후자에서 이렇게 왕·왕비의 의례가 전에 비해 격하된 것은 왕·왕비가 비록 至尊한 지위라 할지라도 대비전 연향에서는 세자 이하와 마찬가지로 대왕대비를 모시고 시연하는 가족의 한 일원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즉 전자에서는 대비전 연향 의식이 君臣의 예와 家人의 예가 혼합되었다면, 후자에서는 家人의 예를 철저하게 행한 것이다.

한편 1728년(영조 4)만 해도 세자상에 왕은 壽年服을 입었으나,<sup>55)</sup> 1752년(영조 28) 7월에 禮經에 실린 장자 3년복 제도를 회복하여,<sup>56)</sup> 1830년(순조 30) 5월 孝明世子 薨에 순조가

54) 1611년(광해군 3)·1630년(인조 8)·1728년(영조 4) 대비전 연향을 가리킨다.

55) 『英祖實錄』, 卷21.9b: 英祖 5年 正月 庚午. “命中祀 壽制服盡後 用樂”

56) 『英祖實錄』, 卷77.13b-15b: 英祖 28年 7月 壬午. “命改 賢嬪 大功服, 定以 壽年之制 (中略) 仍教曰 噫 喪與服 雖有輕重大小之分 由於情出於禮 一也 庚子之後 方喪之制大備 今又復禮經所載長子三年之服 則其可爲復三代之舊制 述昔年之聖德也 噫 惜一葦之加服 墜三代之舊典 則輕重果何如 我朝喪制 本自燦然 方喪又大備 而戊戌之追行 壽服 亦復舊制之一機也 今予不復, 更待何時 嗚呼 三年之喪, 卽天下之通喪 而猶未能行 則孰知傳重之重而爲長子服三年之衰乎 噫 諸臣雖爲予 予則重傳重也 惜古典也 若此然後 雖有長衆之分, 可無掣肘之弊矣 其令儀曹 卽復爲長子三年之服 至於長子婦 則古禮於舅姑服 壽年

3년服을 입은 것으로 미루어,<sup>57)</sup> 세자와 세자빈의 의례를 격상시킨 현상은 당시의 추세로 보인다.

1611년 연향에서는 시연자 향응 절차에서 왕·왕비·세자·세자빈이 직접 대왕대비에게 술을 올리거나 대왕대비가 몸소 이들에게 술을 내려주지 않고, 差備가 대왕대비 이하 외명부에 이르기까지 술을 올렸다. 반면에 1630년과 1728년 연향의 시연자 향응 절차에서는 왕·왕비·세자 등이 각각 대왕대비에게 술을 올리고, 대왕대비는 이들에게 몸소 술을 내려주었고, 1887년 연향의 시연자 향응 절차에서는 왕·왕비·세자·세자빈 등이 대왕대비에게 술을 올리는 절차 없이, 대왕대비가 몸소 술을 내려주는 절차만 있다.

이렇게 1630년 이후 대왕대비가 왕·왕비·세자·세자빈 같은 왕실 가족에게 몸소 술을 내려주는 의식이 첨가 된 것은 임란으로 참고가 될만한 의례나 등록이 불타버린 상태에서 처음으로 대비전 연향 의주를 정한 1611년 연향에 비해, 親愛의 정이 보다 잘 표현되는 쪽으로 변화한 것이다.

1728년까지의 연향에서는 시연자 향응 절차에서 주빈인 대왕대비 및 왕·왕비·세자·세자빈·명부 등이 같이 술을 마셨지만, 1887년 연향에서는 진작 절차에서 대왕대비에게 술을 모두 올리고, 시연자 향응에서는 왕·왕비·세자·세자빈이 대왕대비가 내려준 술을 마시며, 그 다음에 명부·종친·의빈·척신·진찬소당상 낭청 등이 술을 마시어, 次序가 강화되었다. 이는 세자·세자빈의 의례가 격상된 것과도 연관될 듯하다.

앞서 살펴본 네차례의 연향 의식은 1728년(영조 4)까지의 세차례 연향과 1887년 연향으로 크게 대별된다. 한편 1887년(고종 24) 대비전 연향 의식은 1848년(헌종 14) 대비전 연향 의식<sup>58)</sup>과 거의 비슷하다. 또 대비전은 아니지만, 왕의 어머니를 위한 연향이란 점에서 1795년(정조 19) 윤2월의 혜경궁 환갑 연향<sup>59)</sup>을 살펴보면, 주렴을 드리우고 왕의 侍宴位와 拜位가 주렴 밖에 있으며, 의빈·척신이 참여했으며, 三叩頭와 山呼 절차가 있으니, 이미 1795년 연향에서부터 그 이전과 이미 달라지고 있다. 그런데 1795년 연향에서는 시연자 향응 절차에서 왕이 혜경궁에게 술을 올리고, 혜경궁은 왕에게 술을 손수 내려주며, 이때 여관·여집사와 같은 차비가 명부·의빈·척신에게 술을 드린다는 점에서 1728년 연향과 비슷한 특징도 갖고 있으므로, 19세기 대비전 연향의 특징은 1795년 혜경궁 연향의 과도기를 거쳐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故從而爲大功 自唐以後, 爲舅姑服三年之喪 故長子婦之服 亦爲朞年 今當從此矣”

57) 『純祖實錄』, 卷31.12a: 純祖 30年 5月 乙丑. “辰時 行王世子成服 殿下斬衰三年 王妃齋衰三年 世子嬪宮斬衰三年”

58) 『戊申進饌儀軌』, 卷1.26a-37a. 通明殿進饌儀. (奎14372).

59) 『園幸乙卯整理儀軌』, 卷2.4a-8b. 華城奉壽堂進饌于慈宮儀. (奎 14532).